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양 락

공동연구자 | 조 지 민

신 일 용

조 윤 동

이 명 애

신 택 수

박 기 범

이 광 상

김 용 명

강 대 현

김 동 영

김 현 경

김 진 구

김 영 춘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수능 CAT 2010-3

발행일 | 2010년 3월 31일

발행인 | 김 성 열

발행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 서울 종로구 가회로 142

전 화 | (02)3704-3704

팩 스 | (02)730-7487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ISBN | 978-89-6313-422-2 93370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된다. 그런데 ‘미래형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에 확정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2014학년도 수능의 응시 대상인 금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2014학년도 수능 체제를 확정 발표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정책 과제를 주어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연구를 2010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본원이 이를 기초로 6월까지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수능 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체제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능 체제 개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수능 체제에 대한 개선 시안이 나온 후 4~6월의 3개월 동안에 본원에서 이를 구체화 한 기본 계획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상되는 정책 연구를 주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수능의 성격, 시험영역 및 과목, 시행 체제, 점수 체제 등 수능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쟁점과 쟁점별 주장의 내용과 근거, 장·단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수능 체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성열**



# 연구요약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에 확정 발표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체제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로서 시행되었다.

수능 관련 제도 변화는 3년 전에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학년도 수능 체제에 대한 계획은 금년에 확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정책 과제를 주어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안을 금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시안이 마련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할 상황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능 체제의 개선 시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능 관련 쟁점을 수능의 성격, 시험 과목 축소, 복수 시행 방안, 시험의 수준과 유형의 다양화, 출제 방식, 수능 성적 유효 기간 확대, 수능의 점수 체제, 계열 구분 여부(교차 지원 허용 여부),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의 수능 외 국어(영어) 영역 시험 대체(안), 선택 과목 유·불리 및 편중, 수능의 영향력 축소, 언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의 존폐,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제2외국어 관련 쟁점 사안의 14가지로 추려서, 각 쟁점별 주장의 내용과 근거, 장·단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여 본원에서 수행하게 될 정책 연구를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수능 관련 연구 보고서와 세미나 발표 자료,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문헌 조사와 외국의 국가 수준 대학입학시험 사례 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쟁점별로 요약 및 장·단점,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제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체제의 개선은 대학 입시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입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기초한 수능 체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가능성이나 이상에 바탕을 둔 수능 체제 개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바탕을 둔 수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차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4
3. 연구 방법 .....	5
<b>II. 수능 관련 쟁점별 논의 및 시사점</b> .....	<b>7</b>
1. 수능의 성격 .....	9
2. 시험 과목 축소 .....	17
3. 복수 시행 방안 .....	30
4. 시험의 수준과 유형의 다양화 .....	37
5. 출제 방식 .....	44
6. 수능 성적 유효 기간 확대 .....	48
7. 수능의 점수 체제 .....	52
8. 계열 구분 여부(교차 지원 허용 여부) .....	56
9.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 대체(안) .....	60
10. 선택 과목 유·불리 및 편중 .....	69
11. 수능의 영향력 축소 .....	72

12. 언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의 존재 .....	78
13.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	87
14. 제2외국어 관련 쟁점 사안 .....	95

### **Ⅲ. 요약 및 제언 ..... 103**

1. 요약 .....	105
2. 제언 .....	111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미래형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에 확정 발표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출제되므로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2014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의 체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능 제도의 개선은 이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년 전에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14학년도 수능 응시 대상이 되는 금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해서 금년에 새로운 2014학년도 수능 체제를 확정 발표해야 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정책 과제를 주어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009년 12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의 과목을 줄이고 연 2회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시안을 2010년 3월까지 마련한 후 6월까지 새로운 수능 체제의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수능 체제는 이 외에도 시험 출제 과목이 51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수험생이 하루에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하며, 탐구 영역의 경우 1과목만 응시해도 4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과 같이 입실 대기해야 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로 인해 과목 선택의 집중 및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능 체제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능 체제 개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말까지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개선 시안이 나오면, 4~6월의 3개월 동안에 본원에서 이를 구체화한 기본 계획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더욱이 수능 본부는 4월 후반기 17일 동안은 6월 모의평가 출제를 위해 출장 합숙을 해야 하고, 6월 말부터는 9월 모의평가 출제를 위해 합숙을 해야 하므로 모의평가 준비와 모의평가

시행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심사로 정책 연구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능 체제의 개선 시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능의 성격, 시험의 이원화, 시험영역 및 과목, 복수 시행, 점수 체제 등 수능 관련 주요 사안별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쟁점별 주장의 내용과 근거, 장·단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여 본원에서 수행하게 될 정책 연구를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 연구 내용

### 가. 현행 수능 관련 쟁점 추출

- 최근에 수능 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 조사
- 쟁점 분류 및 유목화

### 나. 쟁점별 주장 및 근거 조사

- 쟁점별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주장/의견 조사
- 쟁점별 주장의 근거 또는 논거 조사

### 다. 쟁점별 주장의 장점 및 단점 분석

- 쟁점별 주장의 장점
- 쟁점별 주장의 단점 또는 유의 사항 분석

## 라. 수능 관련 쟁점이 주는 시사점 탐색

- 수능관련 쟁점별 주장의 요약
- 수능관련 쟁점이 수능 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

# 3

## 연구 방법

### 가. 문헌 및 언론 보도 자료 분석

- 수능 관련 쟁점 및 주장 탐색
  - 대상 : 각종 언론 보도 내용, 연구 보고서, 세미나 발표 내용 등
  - 목적 : 현행 수능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탐색
  - 시기 : 2010. 1.~2.
- 외국 국가 수준 대학입학 시험 사례 조사
  - 대상 : 외국의 국가수준 대학입학 시험의 체제
  - 목적 : 우리나라 수능 체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시기 : 2010. 1.~2.

### 나. 전문가 협의회

- 현 수능 점수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탐색
  - 대상 : 교육평가 전공 교수
  - 목적 : 현 수능에서 선택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 문제와 점수체제 대한 의견 수렴
  - 시기 : 2010. 2.

## Ⅱ. 수능 관련 쟁점별 논의 및 시사점

1. 수능의 성격
2. 시험 과목 축소
3. 복수 시행 방안
4. 시험의 수준과 유형의 다양화
5. 출제 방식
6. 수능 성적 유효 기간 확대
7. 수능의 점수 체제
8. 계열 구분 여부(교차 지원 허용 여부)
9.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 대체(안)
10. 선택 과목 유·불리 및 편중
11. 수능의 영향력 축소
12. 언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의 존폐
13.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14. 제2외국어 관련 쟁점 사안

이 장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수능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각 절을 서술하였다. 각 절에서는 수능 관련 쟁점에 따른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논문이나 보도 자료, 각종 자료집이나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가능한 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각 주장의 장·단점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

## 수능의 성격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학력평가로 수능의 성격을 전환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능 실시 초기 단계에는 사고능력 측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로 변모하여 지금은 학업성취도 시험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김신영, 2008; 이종승, 2009)
  - 현재의 수능은 범교과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난이도 조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형태의 문항 유형의 고갈로 인해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김신영, 2008)
  - 어떤 의미에서는 고등학교 교과목의 학업 성취를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시험으로 진락된 느낌이 들 정도임(이종승, 2009)
- 수능의 성격이 모호해 학교 수업과 시험 내용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
  - 사고력 중심의 수능과 학력검사 중심의 내신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이중 부담이 있음

- 내신과 수능의 분리로 인해 입시 준비 부담 증가.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대학의 진학 계열이나 희망 전공 분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며, 대입자격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성격을 띠 (강영혜, 2008)
- 수능 대신 고교 3년간의 학업 성취 결과를 평가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함
  - 대학 진학을 원하는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부과되는 국가수준의 시험인 수능은 각 대학에서 수학할 일반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주어지는 적성검사 성격의 시험보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고교 졸업자에게 기대되는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함(김신영, 2008)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 공통교과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실시하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함. 교과서 중심의 암기위주 교육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교과서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험이 되도록 함(허숙, 2009)
- 국가고사는 ‘학업적성검사’로서의 성격을 가질 필요 없음. 고교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자체가 상위 교육 단계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 함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업적성검사의 성격을 지닐 필요가 없음(이수정, 2008)
-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서 ‘학생 변별형’으로부터 ‘학업 성취기준 대비형’으로, 학업 적성시험에서 학업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화시켜야 함(이종재, 2009)
-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가 평가권을 갖고, 대학에는 학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해짐으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됨</li> <li>○ 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동등화가 용이하여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구체적으로 문제은행 구축 및 2회 이상의 검사 시행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김성훈, 2009)</li> <li>○ 적성검사 성격에 따라 부여되었던 언어, 수리, 탐구 등의 현재 수능 영역의 명칭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교육과정 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li> </ul>
<p>단점 및 고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력을 평가할 경우, 대입 전형 요소로서 내신과의 차별성 문제 발생 가능</li> <li>○ 고등학교 학습 내용 중심의 암기식 학습으로 흘러갈 우려가 상존함</li> <li>○ 수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내신과 그 성격이 겹치는 학력평가가 된다면 수능 폐지론까지 대두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식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최근 저서 「교육의 틀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에서 수능 폐지 요구(김진각, 2010. 3. 19. 한국일보)</li> </ul> </li> <li>○ 객관식 시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범교과적인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온 수능 체제의 누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킬 가능성 있음</li> </ul>

## (2) 대학 수학 능력 측정의 본래 성격을 유지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능의 개념 규정은 개발 초기 상당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음(김성훈, 2009)
  - 수능의 개념 규정은 그 시험 개발 초기에 핵심적인 연구과제 중의 하나였음
  - 초기에는 ‘대학 교육 적성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됨(황정규, 2005)
  - 개념에 대한 혼란은 교육부의 위촉에 의한 대학입학제도 개선 위원회가 제안한 바에 따라 명칭과 개념 정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일단락 됨
  - 명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개념 정의는 “대학 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로 정착(박도순, 1990)
-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범교과적인 고차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현행 수능의 성격을 유지할 필요 있음
- 모든 교과목을 포함하는 검사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특정 전공이 아닌 다양한 전공에 공동으로 요구되는 대학 수학 능력 측정을 위한 사고력 중심의 시험이 필요함(김성훈, 2009)
  -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다양한 경력에 의한 입학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학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비교 잣대가 필요 없다거나 지적 능력이 경시된다고 보지는 않음
  -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여전히 같은 능력을 같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치가 요구되며, 다양한 경력자들이 대학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특정 전공이 아닌 다양한 전공에 공동으로 요구되는 대학 수학 능력은 보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력이어야 할 것임
  - 수능은 그 초기 체제인 언어, 외국어, 수리·탐구 능력 검사가 현행 체제에 비해 여전히 더 타당하다고 봄
- 수능은 교과내용 중심의 학업성취도 검사가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습 경험을 최대한 반영한 학업능력 검사로 이해될 필요 있음. 왜냐하면 우리가 고

교 졸업생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과 특수 능력이기보다는 여러 교과(내용)를 소재로 하여 습득되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에 가깝기 때문임(강현석, 2009)

- 대학입시의 전형 자료들은 상보적 역할을 해야 함(이중승, 2009)
  -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대학별 고사이며 앞으로 이러한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 3가지 전형 자료에서 각각 제공되는 정보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될 수 있는 한 배타적이어야 바람직함
  - 따라서 수능시험에서는 고교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고, 고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는 각각 그에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국가고사의 기능이 졸업 자격 고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이수정, 2008)
  -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임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구상을 구현 하는데 있어 학력평가보다는 우위를 차지하는 평가임</li> <li>○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 등의 다른 대입 전형 자료와는 차별화 되는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수 있어 다른 대입 전형 자료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li> <li>○ 선다형 시험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범교과적인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목적에서 발전시켜 온 시험 체제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이를 계속 개발해 갈 수 있음</li> </ul>
----	--

단점 및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고득점 획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과열 경쟁과 사교육 증가 문제는 상존함</li> <li>○ 시행이 거듭될수록 정형화되는 문항 패턴이나 출제 소재의 고갈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곤란해짐</li> <li>○ 출제의 성격상 발생하는 고교 교과 내용과의 괴리로 인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비판 가능성 있음</li> <li>○ 범교과적이고 시사적인 소재의 문항이 많음으로 인해 문항 개발이 어렵고, 반복 사용도 곤란하여 문제은행이나 복수 시행 등의 제도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짐</li> </ul>
---------------	---

## 나. 요약 및 시사점

- 수능은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 등 다른 대입 전형 요소와는 차별화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정착시킬 필요 있음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고력과 학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도구가 필요함
- 선택 교육과정으로 인해 세분화되어 있는 교과목별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므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의 세부 과목을 통합하여 출제할 필요 있음
- 본래의 성격을 포기할 수 없으나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감소 차원에서 수능을 학업적성 검사와 고교학력 검사의 성격을 띤 두 가지 형태로 시험 유형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함(이종승, 2009; 강현석, 2009)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해소를 위해 시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하되, 하나는 학업성취 준거 도달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차원의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

증시험(최소교과, 최소기준통과 여부를 확인해 주는 필수 시험)과 다른 하나는 일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유형으로 학생이 원하면 선택하여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고등학생 일반능력 시험(적성개념을 포함한 선택 시험) 방안 제안함(서민원, 2009)

- 여기서 학업적성 검사 성격의 시험은 수능 초기의 시험 대상 과목이었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대상 교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수능은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이종승 외, 2004)
  - 국가수준의 시험은 실증적인 자료와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음
  -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대사(大事)에 해당하므로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입 전형 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참고문헌〉

- 강영혜(2008). 대입전형의 사회적 효율성.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08-18. pp. 129-161.
- 강현석(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에 대한 토론.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99-108.
- 김성훈(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33-68.
- 김신영(2008).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pp. 125-149.
- 김신영(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교육평가연구**, 22(1), pp. 1-27.
- 김진각(2010. 3. 19). “한 번 시험으로 인생 좌우 안 될 말... 수능 폐지해야”. **한국일보**, p. 37.

- 박도순(1990).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심의회.
- 서민원(2009).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에 대한 토론.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150-155.
- 이수정(2008). 대입전형제도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08-18. pp. 165-196.
- 이종승(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3-29.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2004-15.
- 이종재(2009).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115-143.
- 허숙(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3-29.
- 홍창남(2008). 대입 자율화 시대의 국가고사 발전 방향.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08-18. pp. 197-239.
- 황정규(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배경.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언어, 수리, 영어 등 2~3개 영역으로 시험 출제 및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현행 수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수능 출제 및 응시 과목에서 제외하여 기초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수능 시험을 개편하는 방안임
- 국가 인증 영어 시험 개발을 전제로 언어, 수리(수리·탐구) 등 2개 영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함(이종승, 2009; 김성훈, 2009)
  - ‘기초수학능력검사’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공통필수교과 내용과 수준에 알맞게 사고력 중심의 검사로서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측정을 주장함(이종승, 2009)
  - 현행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수능 초기 체제로 전환하여 언어, 수리·탐구 2개 영역 시험을 주장함(김성훈, 2009)
  - 대학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 중심의 검사로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측정하는 초기 수능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임
-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 시험 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 등 3개 영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함(이종승, 2004; 이종승 외, 2004; 이종재, 2009)
  - 현행 수능을 단순화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선택형 및 객관적 채점이 가능한 단답형으로 출제함(이종승, 2004)
  - 주요 전형 자료로 고교 내신(교육이력철), 수능(기초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국·영·수 시험 제외)의 3가지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함(이종승, 2004)
  - 주로 국가 인증 영어 시험 개발 논의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주장임
-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수능을 이원화하여 ‘기초수학능력시험’

과 함께 표준화된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음(김신영, 2008; 이종승, 2009; 이종재, 2009; 최종혁, 2008. 1. 24. 머니투데이)

- 미국의 SAT처럼 I, II<sup>1)</sup>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식임
- 기초수학능력시험<sup>2)</sup>과 교과목별 학업능력검사로 이원화(김신영, 2008)
- 기초수학능력시험과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검사로 이원화(이종승, 2009)
- 기초수학능력시험과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으로 이원화<sup>3)</sup>(이종재, 2009)
- 이 경우 기초수학능력시험(혹은 기초수학능력검사)인 수능 I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현행처럼 선다형 및 단답형 평가 문항을 유지함(김신영, 2008; 이종승, 2009)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수능이 대학의 기초수학능력과 고등학교 교과목의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이종승, 2009), 수능의 성격을 대학 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수 있음</li> <li>○ 현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등화하기 용이하여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구체적으로 문제은행 구축 및 2회 이상의 검사 시행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김성훈, 2009)</li> <li>○ 수능 일원화를 전제할 경우,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출제기관의 출제 부담을 줄일 수 있음</li> </ul>
----	--

1) SAT의 경우, 2005년부터는 숫자 I,II 대신 SAT Reasoning Test(SAT 추론능력검사), SAT Subject Test(SAT 교과학력검사)로 부르고 있음(이양락 외, 2009)

2) 김신영(2008)의 경우 기초수학능력시험은 2~3개 영역으로 축소된 형태를 주장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현행 수능 과목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1~2학년 수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언어, 수리, 과학 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외국어 영역의 기초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형태임

3) 참고로 이종재(2009)는 이종승 외(2004)가 주장한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의 성격을 다소 오해하여 출제 범위나 대상 등 상대적으로 ‘기초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인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을 ‘기초수학능력시험’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단점 및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수학능력시험(검사)으로서 수능만을 전형 자료로 할 경우 학생 선발 자료로서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 정보가 요구됨</li> <li>○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3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고교 내신 강화나 대학별 고사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고교 선택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예상됨</li> <li>○ 수능을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할 경우, 국어, 수학,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져 이들 과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음</li> <li>○ 수능을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할 경우, 내신 강화 및 대학별 고사 시행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음</li> <li>○ 만약 수능 I, II로 이원화하여 두 가지 시험을 함께 시행할 경우 시험 과목 축소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출제기관의 출제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음</li> <li>○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이 아니라 2개 영역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수능과 성격이 다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의 연계 가능성 타진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li> </ul>
---------------	---

**(2)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sup>4)</sup> 등 5개 영역으로 시험 출제 및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현행 수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업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수능 출제 및 응시 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임
  - 현행 수능에 비해 출제 과목이 줄고 응시 과목도 줄 수도 있으나, 계열에 상

4) 5개 영역으로 수능 시험을 출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과별 학업 성취도 평가 형태의 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어 통상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현행 수능을 기준으로 시험 과목 축소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능 영역의 표현을 그대로 쓰려고 한다. 다만 세부 주장에서는 원래의 취지대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로 표현하였다.

관없이 사회, 과학을 모두 보게 할 경우 출제 과목은 줄어들지만 응시 과목은 늘어날 수도 있음

-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으로 실시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영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종승, 2004; 이종승 외, 2004; 이종재, 2009)
  - 현행 수능을 단순화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함(현행에서 고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3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완료됨)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영역의 최소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최소한의 지식과 기능을 선다형과 논문형 등의 평가 문항으로 출제함
- ‘교육과정기반 학력시험’으로 실시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영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종승, 2004; 이종승 외 2004)
  - 현행 수능처럼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교육과정을 출제 범위로 하여 선다형 외에도 다양한 평가 문항을 도입하여 실시함
  - 평가원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을 시행하고 기타 과목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것(대학별 고사)을 전제로 함
- ‘교과별 학업능력검사’로 실시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영역으로 축소하는 방안(김신영, 2008)
  - 현행 수능처럼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교육과정을 출제 범위로 함
  - 전공의 특성을 고려해 각 대학이 모집 단위별로 필수 응시 시험 영역을 사전에 공시하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함(김신영 외, 2008)
-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수능을 이원화하여 ‘표준화 기초학력시험’ 혹은 ‘교육과정기반 학력시험’, 혹은 ‘교과별 학업능력검사’를 수능 II로 해서, 수능 I인 ‘기초수학능력시험’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종승, 2004; 최중혁, 2008. 1. 24. 머니투데이; 김신영, 2008; 이종재, 2009)
  - 수능 I인 ‘기초수학능력시험’과 함께 실시한 경우 수능 II인 ‘교과별 학업능력검사’는 심화 과정을 선택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김신영, 2008)
  - 수능 II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의 출제를 포함시켜 우수한 학생들의 도전적

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음(최중혁, 2008. 1. 24. 머니투데이)

- 국어, 수학, 영어 등과 달리 세부 영역이 있는 사회, 과학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유·불리나 편중 문제, 응시 과목 축소에 상응하는 출제 과목 축소 문제, 출제 기관의 출제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출제 및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김성열 외, 2008)
- 과학의 경우에는 현행 8과목 체제를 I, II과목을 통합 조정하여 4~6과목 체제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음(김성열 외, 2008)
- 사회의 경우에는 현행 11과목 체제(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13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9과목으로 축소)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영역 간의 비중이 달라 조정하기가 어려움(김성열 외, 2008)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달리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출제 과목에서 제외되는데, 이중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제외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부분적으로 줄일 수도 있음</li> <li>○ 현행 수능에서 응시자가 적은 제2외국어/한문 및 직업탐구 영역을 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제기관의 출제 부담이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li> <li>○ 현행보다 출제 과목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동등화가 용이해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수능 복수 시행)에서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li> <li>○ 현행 수능에서 타 영역의 시험이나 문항과 성격이 다른 제2외국어/한문 및 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하여 수능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음</li> </ul>
----	---

<p>단점 및 고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단기적으로 고1, 장기적으로 중3까지의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형 자료로서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 정보가 요구됨</li> <li>○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중3에서 끝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재편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신 강화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고교 선택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예상됨</li> <li>○ ‘교육과정 기반 학력시험’이나 ‘교과별 학업능력검사’를 주장할 당시에는 선택 교육과정이 고2~3학년 과목이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1도 선택 교육과정이 되어 시험 범위를 고1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li> <li>○ ‘교육과정 기반 학력시험’ 또는 ‘교과별 학업능력검사’의 경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의 영역으로 배분되어 있는 과학의 경우나, 특히 영역 간의 비중이 서로 다른 윤리, 지리, 역사, 법·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의 경우 세밀한 출제 방안이 없을 경우 현행처럼 선택과목 유·불리 및 편중 문제 발생과 고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예상됨</li> <li>○ 현행 수능에서 제외되는 제2외국어/한문과 직업탐구 영역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됨. 즉 제2외국어/한문과 직업탐구 영역 관련 전공 대학에서 고교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를 통해 관련 전공 과목에 대한 별도의 전형 자료가 필요함</li> <li>○ 이를 ‘기초수학능력시험’인 수능 I 과 이원화하여 수능 II로 실시할 경우 시험 과목 축소로 인한 효과가 사라지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출제기관의 출제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li> </ul>
-------------------	---

**(3) 탐구 영역의 일부 출제 영역 및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현행 수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업탐구 영역을 수능 출제 및 응시 과목에서

- 제외하는 방안과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임
- 현행 수능에 비해 출제 과목이 줄어들지만, 현재 사탐, 과탐, 직탐은 계열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생 입시 부담 경감을 위한 응시 과목 축소와는 무관한 방안임
  -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검사’로 실시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등으로 출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이종승, 2009)
    - 현행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출제과목이 51개에 이르고 650여명의 방대한 출제 인원으로 인해 출제 장소 섭외가 어렵고 출제 본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개선이 필요함(이종승, 2009)
    - 현행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체제를 유지하되 응시 인원이 매우 적고, 출제 부담이 큰 직업탐구 영역을 출제 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종승, 2009)
    - 수능의 직업탐구 신설로 인해 전문계 고교가 대입 통로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장세풍, 2010. 1. 21. 내일신문)
    -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의 독자 실시가 아니라 수능 I 인 ‘기초수학능력시험’과 함께 실시한 경우 수능 II는 심화 과정을 선택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이종승, 2009)
    - 수능 II는 각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이나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선택해서 볼 수 있음(이종승, 2009)
    - 수능 II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의 출제를 포함시켜 우수한 학생들의 도전적인 학습을 유도함(최중혁, 2008. 1. 24. 머니투데이)
  -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수가 13개(2007 개정 교육과정 기준)에서 9개로 축소되어 자연스럽게 출제 과목 수가 일부 축소됨(교과부, 2009)
  - 직업탐구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 등과 달리 세부 영역이 있는 사회, 과학,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선택과목 유·불리나 편중 문제, 응시 과목

축소에 상응하는 출제 과목 축소 문제, 출제 기관의 출제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출제 및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김성열 외, 2008)

- 과학의 경우에는 현행 8과목 체제를 I, II과목을 통합 조정하여 4~6과목 체제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음(김성열 외, 2008)
- 사회의 경우에는 현행 11과목 체제(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13개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9과목으로 축소됨)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영역 간의 비중이 달라 조정하기가 어려움(김성열 외, 2008)
-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에도 현행 8개 과목 체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서로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어려움(김성열 외, 2008)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많은 선택과목을 가진 직업탐구 영역을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출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li> <li>○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가 축소되어 자연스럽게 출제 과목이 줄어들어 출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탐구 영역 출제 제외와 사회탐구 과목 축소로 출제 기관의 출제 부담은 일부 줄어들지만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그대로 유지됨</li> <li>○ 현행 수능의 전반적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이러한 방안은 직업탐구 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에서의 2~3개 시험 과목 축소에 국한됨으로 인해 출제 기관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음</li> <li>○ 직업탐구 영역의 수능 실시는 전문계 고교 활성화 대책으로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살려 새로운 전문계 고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li> <li>○ 만약 ‘기초수학능력시험’을 별도로 보는 수능 이원화를 전제로 할 경우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출제 기관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li> </ul>

#### (4) 학생들의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응시 과목 축소 문제는 크게 응시 과목 축소 논의와 그에 따른 출제 과목 축소 논의로 나뉨
-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최대 2과목만 선택, 영어는 수능에서 분리하여 상시 능력평가로 전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 2012학년도 입시부터 전체 응시 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
  - 2013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영어) 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여 문제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지험으로 대체하고, 탐구 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전체 응시 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
-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 과목 축소 방안 공청회’의 3가지 응시 과목 축소 방안(이종규, 2008. 9. 24. 한겨레신문)
  - 1안은 탐구 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을 1과목 줄이는 것
  - 2안은 현행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과목을 추가로 포함시킨 탐구 영역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
  - 3안은 현행처럼 탐구 영역에서 최대 4과목,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학년도 이후에 과목을 축소하는 것
- ‘대입 자율화를 위한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의 제7차 교육과정 체제를 전제로 한 3가지 응시 과목 축소 방안(김성열 외, 2008)
  - 1안은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최대 택2
  - 2안은 탐구 최대 2과목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1과목, 최대 택3
  - 3안은 탐구 최대 3과목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1과목, 최대 택4
-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4개 과목을 치르는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에서 2과목

으로 축소하는 방안(연보흠, 2009. 12. 31. MBC; 이상은, 2009. 12. 30 한국경제; 전용빈, 2009. 12. 30. 국민일보)

- ‘대입 자율화를 위한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의 제7차 교육과정 과목을 통합하여 출제 과목을 축소한 후 응시 과목 축소하는 방안(김성열 외, 2008)
  - 사탐 7개 과목(국사, 세계사, 지리A, B, 윤리, 일반사회A, B), 과탐(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혹은 과학 A, B,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또는 6개 과목, 직탐(농업A, B, 공업A, B, C, D, 상업A, B, C, D, 수산·해운A, B, C, 가사·실업A, B) 15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대로 조정하는 방안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 과목 축소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li> <li>○ 응시 과목 축소에 따른 출제 과목 축소가 이루어지면 출제 기관의 출제 부담 경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li> <li>○ 영어를 별도의 상시 능력평가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친 응시 과목 축소는 고교 내신 강화나 대학별 고사로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선택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li> <li>○ 수능 응시 과목 축소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상시 능력평가 출제 및 시행을 수능 출제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출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음</li> <li>○ 출제 영역 및 과목 축소 없는 응시 과목 축소는 현행 51개 과목을 출제하는 부담이 그대로 유지됨(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2~53개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선택과목 수의 축소로 인해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50개 과목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임)</li> <li>○ 응시 과목에 따른 출제 과목 축소 방안은 선택형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낳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영역(사회탐구와 제2</li> </ul>

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구체적인 출제 과목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 출제 과목 축소 없이도 대학의 학부 및 학과별로 사전에 요구하는 과목을 공지할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응시 과목을 축소할 수 있음

## 나. 요약 및 시사점

- 수능 성격의 재조정을 통해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여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등 3개 영역으로 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수능 횟수를 늘이는 방안(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으로 전환할 경우 언어와 수리·탐구 등 2개 영역으로 축소)이 검토되고 있음
- 수능 성격의 재조정을 통해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으로 전환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영역으로 시험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더불어 수능을 이원화하여 기초수학능력시험(수능 I)과 교과별 성취도시험(수능 II)으로 병행하자는 주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이종승 외, 2004; 이종승, 2004; 최중혁, 2008, 1. 24 머니투데이; 이종재, 2009)
- 현행 체제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 직업탐구 등 일부 영역을 수능 출제해서 제외하는 방안 및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학생들의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음. 단,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행 체제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별로 응시 과목 축소에 상응하여 출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출제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택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과 더불어 특정 영역의 경우 구체적인 출제 과목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출제 과목 축소 없이도 대학의 학부 및

학과별로 사전에 요구하는 과목을 공지할 경우 응시 과목 축소 문제 및 선택 과목 유·불리 및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사회과교육과정**. 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김성열, 이양락, 조용기, 이창훈, 박순경, 정영근, 이명애, 시기자, 심재호, 김동영, 신항수, 박영수, 강현석, 김재춘, 박종배, 백순근, 홍후조, 이영호, 신호근(2008). **대입 자율화를 위한 수능 체제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 CAT 2008-19.
- 김성훈(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김신영(2008).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비전 탐색**.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학술세미나자료집.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1. 22).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미간행유인물).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조윤동, 남진영, 김진석, 이문복, 김용명, 은지용,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신일용, 최혁준, 심재호, 김동영, 김진구, 함승연,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2009). **미국 SAT와 ACT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7.
- 이종승(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RM 2004-22.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 김병진, 최원혜(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승(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이종재(2009).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연보흠(2009. 12. 31). 수능시험 횟수 늘리고 과목 줄인다. **MBC**, 자료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095515822&tp=imbc> (검색일: 2010. 1. 25.)
- 유성룡(2008. 10. 12.). ‘대입 자율화’에 따라잡을 공부법은, **한겨레신문**.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93338.html> (검색일: 2010. 1. 25.)
- 이상은(2009. 12. 30.). 수능 응시횟수 확대·과목 축소 추진, **한국경제**, 자료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3067691> (검색일: 2010. 1. 25.)
- 이종규(2008. 9. 24.). ‘올해 중3, 대학수능 1과목만 줄듯. **한겨레신문**.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12178.html> (검색일: 2010. 2. 11.)
- 장세풍(2010. 1. 21). 전문계고교, 대입 통로로 변질-지난해 대학 진학률 72.8%...산업현장서도 외면받아. **내일신문**, p. 19.
- 전용빈(2009. 12. 30). 교과부, 수능 체제 개편 작업 착수... 응시횟수 늘리고 과목 수 축소. **국민일보**, 자료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697381&cp=du> (검색일: 2010. 1. 25.)
- 최중혁(2008. 1. 24). 수능 이원화, 내신 반영과목 축소 필요, **머니투데이**. 자료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12416275566471> (검색일: 2010. 1. 15.)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현재 수능 체제를 유지하면서 2회 실시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능의 성격(고부담 검사), 출제 체제(폐쇄형 출제 방식), 점수 체제(표준점수 및 등급제) 등의 변화 없이 현 수능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 2회 실시하는 방안
-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이 단 한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회/정서적 문제 해소(이주호, 2009)
- 복수 시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 감소(김신영, 2009; 이종승, 2009 등)

#####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체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수의 기회 부여를 통하여 수험생의 부담 경감 가능성</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검사 간 간격이 최소 3개월 필요. 이 경우 교육과정상의 검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복수 검사의 내용적/측정학적 동질성 확보 불가능(신뢰도 결여)</li> <li>○ '94학년도 수능에서의 난이도 조정 실패 경험</li> <li>○ 검사에 따른 유·불리 문제 발생 가능성</li> <li>○ 현 체제하에서 수능 응시 기회가 선택적으로 주어질 경우, 능력 집단의 동질성 결여와 표준 점수제 및 등급제의 신뢰성 문제 발생(예, 1차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4% 대부분이 2차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등급의 비율이 8% 가까이 증가 가능성)</li> <li>○ 고부담/선발 기능이 강한 수능에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이용한 복수 시행 적용이 어려움(이창훈 외, 2007; 2008)</li> </ul>

- 즉, 예비검사를 통한 문항 정보의 사전 획득과 기출 문항 재사용 없는 검사 동등화 설계 불가능(이론적/경험적 근거 희박)
-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의 효용성 문제(이창훈 외, 2008: 탐구 영역의 경우 기 개발된 문항이 변화된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없거나 시의성/시사성이 민감한 문항의 활용이 어려움)
- 시험 시행상의 어려움(예, 출제위원 섭외, 시험장 운영, 합숙 장소 확보, 비도시지역 학생 참여 등)
- 교육과정 파행 운영 및 선행 학습 조장 우려

**(2) 현 수능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목을 분리해 2회로 나눠 실시**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언어, 수리, 및 외국어(영어) 영역과 탐구 영역의 검사 일자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
- 대학 시험을 연 1회 실시하면서 날짜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다수의 국외 사례(일본, 중국, 프랑스 등) 존재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도모(현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수험생, 시험 이해 관계자, 시행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li> <li>○ 영역을 분리하여 시행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 경감 가능성</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의미의 복수 시행이라고 할 수 없음(영역별 1회 실시)</li> <li>○ 검사의 성격, 타당성, 신뢰도의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님</li> </ul>

**(3) 수능의 성격을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고 복수 시행(이종승 외, 2004)**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고1 수준으로 한정) 맞게 출제하는 학력  
고사
- 체제 단순화 (언어, 수리, 영어 중심의 검사)
- 점진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도입
- 고2부터 응시 자격 부여하고 연 2회 실시
-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확대
- 과목 수 축소를 전제로 타당도 측면에서 수능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복수로 측정할 필요성 제기(김성훈, 2009)
- 복수 시행으로 인한 측정의 신뢰도 제고(측정/검사이론: 고전검사이론)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학력 기준 제공</li> <li>○ 비교적 평이한 시험으로 학생들의 수험 부담 감소(사교육비 경감 가능성)</li> <li>○ 복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 1회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li> <li>○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가 가능하여 문항의 동질성 및 검사 간 안정적인 난이도 조정이 가능</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과 연계된 내신 또는 학업성취도 검사와 동일 또는 중복될 가능성</li> <li>○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로 전환할 경우 문항 비공개 및 검사 보안 필요</li> <li>○ 1년 단위에 기초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 파행 우려</li> <li>○ 선발 기능의 약화로 인한 대학별 고사 부활 우려</li> <li>○ 점수 보고 방식에 있어서 등급 또는 표준점수를 부여할 것인지</li> </ul>

대학 입학의 최소 자격기준만을 제시하는 준거평가 방식을 이  
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전자의 경우 저부담 검사의 성격을 고부담화할 가능성이 있으  
며 후자의 경우 학생의 80%가 대학에 입학하는 상황에서 기초  
학력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 제기

**(4) 수능의 성격을 표준화 기초학력시험로 전환하고 복수 시행(이종승 외, 2004)**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고교 교육에서 달성해야할 최소 기초 학력 측정
-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으며 고1까지의 공통 교과 수준을 유지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걸쳐 실시
-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의 사고력 중심 학력고사
- 절대적 기준을 고려한 표준화된 기초학력시험
-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응시 자격은 고1을 수료한 학생에게, 그리고 성적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등급점수만 제공하여 대학 입시에 차지하는 검사의 영향력을 감소
- 수능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고를 복수로 측정할 필요성 제기(김성훈, 2009)
- 복수 시행으로 인한 측정의 신뢰도 제고(측정/검사이론: 고전검사이론)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에 의한 대학 서열구조 완화(검사의 성적은 최소등급화하여 제공)</li> <li>○ 수험생의 수험 기회 확대</li> <li>○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가 가능하여 문항의 동질성 및 검사 간 안정적인 난이도 조정이 가능</li> </ul>
----	--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1 수준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습 부담 또는 사교육 증가 우려</li> <li>○ 1년 단위에 기초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 파행 우려</li> <li>○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로 전환할 경우 문항 비공개 및 검사 보안 필요</li> <li>○ 선발 기능의 약화로 인한 대학별 고사 부활 우려</li> <li>○ 미국 SAT I의 예처럼 선발 기능은 약화되나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점수대가 형성되는 등 고부담 검사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li> <li>○ 표준화 기초학력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 제기</li> </ul>
--------------	--

**(5) 수능의 성격을 이원화하고 복수 시행(김신영, 2009)**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험자의 기초 능력(고등학교 1~2학년 과정)검사와 선발적 기능이 강화된 교과별 심화학습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심화선택과정 시험; 고등학교 2~3학년 과정)로의 이원화
- 성격이 다른 두 검사(기초검사와 심화된 교과학력검사)를 통하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나) 장 · 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과 검사 간 충돌을 최소화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각 학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여야함)</li> <li>○ 국가수준의 공신력 있는 검사만을 가지고도 대학입학이 가능(선발기능 강화로 인한 개별 대학에서의 논술 및 고사 불필요)</li> <li>○ 서열평가와 준거참조평가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평가의 질 개선</li> <li>○ 현재 수능의 성격을 고려하면, 같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것보다 성격이 다른 검사를 한 번씩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예, 1안의 문제점 참조)</li> </ul>
----	---

<p>단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검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 제기(기초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 필요)</li> <li>○ 이원화된 검사 중 기초검사를 복수 시행할 확률이 높는데, 이 경우 응시회수, 점수 체제, 점수 유효 기간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li> <li>○ 기초검사를 복수 시행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연 2회 이상 실시 불가할 것으로 예상</li> <li>○ 복수시행 시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의 적용과 검사 동등화 설계안 및 점수 체제에 대한 논의 필요</li> <li>○ 복수 시행과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경우 문항 보안이 필수. 이 경우, 기초검사의 문항을 비공개로 하고 심화교과 학력검사의 경우는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li> <li>○ 심화교과 학력검사에 있어서도 검사 성격(교부담 검사 또는 적성검사 등), 응시자격, 평가 과목, 점수 체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li> </ul>
----------------------	--

## 나. 요약 및 시사점

- 사회/정서적, 수능의 타당도, 그리고 측정학적 측면에서 복수시행의 필요성 제기
- 동형 검사지 구축(내용/측정학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검사지)을 통한 신뢰도 확보가 현 수능 체제하에서는 어려움(예, '94학년도 수능)
- 단순히 수험생에게 복수의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시험의 성격, 시험 범위, 등급 부여 방식(점수 체제 방식), 문항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이종승 외, 2005)

## 〈참고 문헌〉

- 교육계에서 검토되는 수능 횟수 확대방안(2010. 01. 11.). **동아일보**.
- 김성훈(2009). 대학능력시험 체제의 타당성 진단.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김신영(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 **교육평가연구**, 22(1), 1-27.
- 수능의 이원화 및 내신 반영 과목 축소 필요(2008. 01. 24.). **머니투데이**.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 김병진, 최원혜(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ORM 2004-22.
- 이종승(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기자간담회(2009. 12. 30.).
- 이창훈, 고희경, 구자욱, 권영락, 김완수, 동효관, 박영수, 배수찬, 변희현, 손민정, 신명선, 신항수, 양정실, 이상하, 이영주, 이재봉, 이정우, 이현숙, 이혜원, 장호성, 전유아, 조운동(2007).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Ⅲ)**.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RRE 2007-7.
- 이창훈, 박종훈, 양정실, 고희경, 이광상, 김부미, 이혜원, 전유아, 신항수, 권영락, 이정우, 동효관, 이재봉, 구자욱, 김현경, 박영수, 손민정, 장호성, 이상하, 신태수(2008). **문제은행식 출제체제 구축연구(Ⅳ)**.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PRE 2008-12.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시험 유형의 다양화 · 특성화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현행 수능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각 영역별로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형의 시험 유형으로서 다양화 · 특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임
  -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시험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임
  - 특정 과목에서 수준이 다른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닌 실정임
- 수능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거나, 영역이나 교과별 시험을 더욱 전문화하거나, 문항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거나, 대학의 특성이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시험의 형태나 내용을 특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SAT나, 영국의 GCE, 독일의 아비투어 시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등의 경우 지원자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종류, 과목의 수 등이 달라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 각 나라의 시험유형이나 수준 비교(이양락, 2007; 이양락 외, 2009a; 2009b)

국가	시험유형	시험수준	문항 형태	문항 수
미국	SAT Reasoning Test (추론능력검사)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	5지 선다형, 단답형, 에세이	쓰기(50문항, 60분) 수학(54문항, 70분) - 계산기 비판적 읽기(67문항, 70분) 동등화용(25분)

	SAT Subject Test (교과학력검사)	교과목에 관한 지식의 수준과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	4지 혹은 5지 선다형	5개 영역, 17과목 수학I, II 50문항에서 그 외 과목 90-95문항 까지 다양(60분)	
	ACT (미국대학시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바탕을 둔 학업 성취도	4지 혹은 5지 선다형, 서술형	영어(75문항, 45분) 수학(60문항, 60분) - 계산기 독해(40문항, 35분) 과학(40문항, 35분) 쓰기(1문항, 30분) - 에세이	
영국	GCE (대학 입학 자격 시험)	AS <sup>5)</sup> qualification	G C S E 와 A-Level의 중간 단계	A-Level과 문항 형태와 동등 난이도	AS 자격증에만 해당되는 6개 과목이 별도로 있음
		A2 qualification	수준이 상당히 높음, 대학의 '개론' 수준	주관식 문제가 큰 비중	진로를 고려한 2-3 과목 선택 교과목별로 2-3시간 혹은 5-6시간
		AEA (고급 심화)	GCE A-Level 보다 우수한 학생들 대상 시험	지필검사와 수행 (performance-based) 검사	각 교과에 대한 이해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개략적 지식 측정
일본	대학 입시센터시험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 내 성취도 평가	다지 선다형	6개 교과 32과목 수능보다 시간 길고 문항 수 많음(2일에 걸쳐 시행)	
중국	전국일반대학신입 생모집통일시험 (全國普通高等學校招生統一考試) <sup>6)</sup>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의 지식 과 능력을 측정, 종합적인 지적 수준 평가	3지 혹은 4지 선다형, 단답형, 에세이	어문(20문항), 수학(20문항), 외국어(영, 일, 러, 독, 프, 서 77문항 내외), 문과종합(정치, 역사, 지리), 이과종합(물리, 화학, 생물)	

5) AS와 A2 qualification을 A-Level 이라고 한다.

6) '전국보통고등학교초생통일고시'로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의 명칭이며 줄여서 '高考(까오카오)', 또는 '統考(통카오)' 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독일	아비투어시험	기본코스 두개 중점코스 두개 (대학진공 관련) 선택 심층적 지식 요구	필기시험(주관식, 논술형) 구술시험(전문적인 지식내용 및 언어 구사능력 평가)	네 개 과목 선택(이들 중 한 과목은 구술시험) (국어(독어), 영어, 수학 을 필히 포함 /매우 중요) 과목당 4-5시간씩 총 20여 시간 시험
프랑스	일반 바칼로레아	3계열(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필기시험(주관식, 서술형, 논술형) 회화(외국어) 구두시험(수험생이 신청한 작가 및 저작 중에서 과목 별로 대개 15분 -30분)	과목당 2-4문항, 과목당2-4시간 일주일에 걸쳐 필수, 선택 과목별로 하루 1-2과목씩 시험 * 시험회수, 2회 사전시험(2년차 말) 최종시험(3년차 말)
	기술 바칼로레아	8계열(산업과학, 실험과학, 의학, 사회과학, 농업, 환경과학, 음악 무용, 호텔경영)		
	직업 바칼로레아	48개 전공분야 시험		
러시아	국가 통합시험(ЕГЭ)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 내 성취도 (필수과목 통과 자에게만 선택 과목 응시 기회 부여)	4지 혹은 6지 선다형, 단답형, 논술형	러시아어, 수학 필수 수학(18문항, 4시간) 러시아어(39문항, 3시간) 그 외 9과목정도(30문항 내외, 각 과목 4-6시간)

(나) 장·단점 및 고려할 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유형을 다양화·특성화하기 위해 시험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음</li> <li>○ 이러한 문항의 유형 및 평가 방식이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학생의 능력이나 재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인 수능을 지양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수능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함</li> </ul>

**(2) 수능 수준의 다양화**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능의 출제 과목 수가 51개에 이르러 출제 및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문항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2004년 11월 17일자 연합뉴스), 수능을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공통시험’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내신 상위 몇 % 이내 혹은 ‘기초공통시험’ 몇 점 이상 등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수능을 이원화할 수 있음
-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동점자가 너무 많아져서 9등급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2004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각 교과별 시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과목을 보되 과목별로 2~3시간 동안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같은 과목의 시험이라도 수험생의 특성이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것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의 경우 학업적성시험에 해당하는 비교적 쉬운 SAT Reasoning Test, 교과목별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중간 정도의 SAT Subject Test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이양락 외, 2009b)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 쉬운 형태의 시험과 어려운 형태의 시험으로 이원화하거나, 혹은 쉬운 시험, 중간 정도의 시험, 어려운 시험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음
단점 및 고려사항	○ 획일적인 수능을 지양하고 시험의 수준 등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수능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함

**(3) 시험의 형식을 선택형 외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평가**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현행 수능의 문항 형식은 대부분 5지 선다형 지필고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sup>7)</sup>
- 시험의 형식을 선택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력, 높은 수준의 추리력은 사실상 5지 선다형 문항으로는 켈 수 없으므로 선다형 이외의 다른 방식의 검사가 필요함
- 영국의 GCE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 SAT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실제로 작문하도록 하는 쓰기 시험을 도입하였음(이종승 외, 2004)
-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학력평가가 주로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짐
- 해외의 선진 교육평가 기관에서는 이미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하여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 대규모의 국가 수준의 평가를 전담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서답형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평가하면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단점 및 고려사항	○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채점에 드는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크며, 채점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7) 수리 영역에서 ‘가’형, ‘나’형 각각 9개씩의 문항에 대해 단답형으로 답안지에 표기하고 있음

**(4) 수능의 과목별 문항 수 늘리기**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대학 수학 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과목별 문항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수능의 경우 수리 영역은 30문항이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20문항임
  - 이렇게 적은 문항 수로는 각 영역/과목에서의 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많은 수험생을 변별하기 매우 어려움
- SAT의 Reasoning Test의 수학 54문항, Subjective Test의 수학 50문항, ACT의 수학 60문항, SAT의 미국사나 세계사 90~95문항이고, 물리, 화학, 생물 75~85문항, ACT의 과학 40문항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문항임(이양락 외, 2009b)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 문항 수를 늘리면 시험의 변별력이 확보되고 대학 수학 능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단점 및 고려사항	○ 영역/과목별 문항 수는 수험생의 시험 시간과 출제에 부담이 되므로 출제 과목과 수험생의 응시과목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나. 요약 및 시사점**

- 시험 유형에서 쟁점이 되는 4가지 사안을 현행 수능과 개선 방향을 비교하여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내용	현행 수능	개선 방향
시험 유형 (내용면)	단일 유형	다양한 유형
시험 수준 (난이도면)	단일 수준	다양한 수준
문항 형태	선다형 문항	선다형·서술형·논술형
문항 수 (변별도면)	적은 문항 수	문항 수 확대

- 획일적인 수능을 지양하고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분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한 예로, 수능 I은 기초 학력고사로서 수능 II는 심화선택과정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남진영, 서보억, 김용명, 박태준,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이정우, 신항수, 강대현, 신일용, 최혁준, 김동영, 동효관, 구자옥, 김현경, 김진구, 함승연, 박영수,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 손민정, 장호성, 윤영순, 김새환 (2009a). **일본 대학 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46.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조윤동, 남진영, 김진석, 이문복, 김용명, 은지용,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신일용, 최혁준, 심재호, 김동영, 김진구, 함승연,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2009b). **미국 SAT와 ACT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7.
- 이양락(2007), 독일 김나지움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입학자격시험, **교육광장**, 제10권 2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자료 PIM 2007-5.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보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국 대학 입학시험 문제 비교 세미나: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연구자료 ORM 2002-14.

#### <각 나라의 시험 유형이나 수준 비교 관련 자료 출처>

- <http://www.admis-examen.fr/baccalaureat/epreuves-langues-vivantes> (검색일: 2010. 2. 16.)
- <http://curriculum.qcda.gov.uk/key-stages-3-and-4/evaluating-your-curriculum/index.aspx> (검색일: 2010. 2. 18.)

## 가. 주요 출제방식의 내용과 쟁점

### (1) 폐쇄형 출제 방식

#### (가) 주장의 내용

- 출제위원이 출제계획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최종 검사지를 완성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출제 과정을 외부와 단절된 보안 장소에서 합숙하여 진행하는 방식

####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모의평가나 수능에 적용되고 있는 출제 체제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li> <li>○ 민감한 고부담 검사에서 폐쇄형 출제방식은 수험생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정성과 신뢰성 제공</li> <li>○ 민감한 고부담 검사에서 문항의 철저한 보안 유지 가능</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및 교사들의 장기간 합숙으로 인한 연구 중단 및 수업 결손</li> <li>○ 양질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li> <li>○ 연도별 문항의 일관성과 동질성 부족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실시</li> <li>○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 불가</li> <li>○ 합숙 및 보안 장소 섭외의 어려움</li> </ul>

### (2)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재택 출제 방식을 적용하여 출제자들이 특정 장소에 감금되지 않고 집이나 연구실 등에서 자유롭게 문항을 출제

- 수능을 1년에 2회 이상 시행한다거나 다량의 문항이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도입이 필요
- 미국의 SAT 경우 재택 출제 방식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이종승 외, 2004)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의뢰와 팀 의뢰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폐쇄형 출제 방식보다 다량의 문항 개발이 가능(예, 평가원 문제은행 연구사업과 중국의 문항 공모제<sup>8)</sup>)</li> <li>○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은 검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과 내용의 문항들을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제작 가능</li> <li>○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은 장기적으로 검사 제작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 인력의 절감 가능</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됨(김경훈 외, 2005)</li> <li>○ 문항의 노출이나 유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저장되어있는 문항이 변화되는 교육과정과 상충되거나 시의성/시사성이 강한 문항들의 활용 제약(이창훈 외, 2008)</li> <li>○ 교육과정과 크게 연계되지 않은 적성시험에 적용하기 용이한 출제 방식(현 수능체제 하에서 적용하기 어려움)</li> <li>○ 예비 검사를 통한 문항의 정보 획득이나 문항 검토위원회 등을 통한 문항 수정과정이 필수적임(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의 선결조건)</li> <li>○ 상대적으로 긴 출제 기간으로 인하여 출제위원들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 문항의 질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ul>

8) 중국의 경우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항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문항을 문제은행에 저장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시험 단계에 있음

**(3) 반(半)개방형 출제 방식**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폐쇄형 출제 방식과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혼합한 방식(김경훈 외, 2005; 김주훈과 설현수, 2001)
- 문항의 개발은 재택 형태로 수행하고 이의 검토와 수정은 합숙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항의 질을 확보하는 방식(출퇴근/협의회 방식: 남명호 외, 2005)
- 일본의 대학 입시센터시험과 대만의 대학입학연합고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형 출제 방식과 연동될 경우 합숙 일자 축소 가능</li> <li>○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와 연동될 경우 문항의 질 향상 기대</li> <li>○ 현재 수능형 문제은행식 출제방식과 유사(반개방형 출제 방식: 유사한 업무 요람 및 출제 매뉴얼 존재)</li> <li>○ 상대적으로 현재보다 출제위원 섭외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li> <li>○ 다량의 문항 개발이 가능</li> <li>○ 문항 검토 및 수정을 위한 집중적인 합숙을 통하여 문항의 질 개선 가능 예상(폐쇄형 문항 검토위원회 운용)</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 노출과 출제 및 검토위원 노출 등 보안 유지에 대한 문제점 예상</li> </ul>

**나. 요약 및 시사점**

- 수능의 검사 성격(고부담 검사)과 현재 대학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쇄형 출제 체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경우 폐쇄형 출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 하지만 현 수능의 성격(고부담 검사)과 교육과정 변화가 자주 있는 상황에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 반개방형 출제 방식은 폐쇄형 및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으나 문항 및 참여 인원의 신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 후에 실행 논의 가능

### 〈참고 문헌〉

- 김경훈, 김영춘, 김진구, 박영석, 박진동, 서유경, 손민정, 신항수, 심재호, 양길석, 이명애, 이용백, 이창훈, 장의선, 조운동, 조지민, 진재관, 함승연(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CAT 2005-9.
- 김주훈, 설현수(2001). **일본, 중국, 대만의 대학 입시제도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E 2001-12.
- 남명호, 김경훈, 양길석, 손원숙, 지은림, 백순근, 이규민(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식 출제·관리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5-42.
-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비전 탐색(2008). 한국교육평가학회 학술 세미나 자료집.
- 이종승(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제2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포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과 미래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 김병진, 최원혜(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2004-22.
- 이창훈, 박종훈, 양정실, 고희경, 이광상, 김부미, 이혜원, 전유아, 신항수, 권영락, 이정우, 동효관, 이재봉, 구자옥, 김현경, 박영수, 손민정, 장호성, 이상하, 신태수(2008). **문제은행식 출제체제 구축연구(IV)**.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PRE 2008-12.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수능 성적 유효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능 성적 유효 기간을 고교 졸업 후 2년으로 연장(백순근, 2003)
  - 수능을 연 2회 실시하고, 수능의 성격을 미국 SAT I 과 유사한 일반 학업적 성검사나 미국의 ACT와 유사한 기초학력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교 2학년부터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게 함
  - 성적은 표준점수와 등급만 제공하여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성적 유효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재수생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음
- 수능 성적 유효 기간을 2년 정도하는 것이 적절(이종승외, 2004; 이종승, 2009)
  - 수능을 ‘기초수학능력검사’(수능 I)와 ‘학업성취도 검사’(수능 II)로 이원화하여 수능 I의 범위와 수준은 고1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하고 고2부터 응시자격 부여. 시험 시행은 수능 I에 한해 연간 2회 정도 실시하고 수능 점수를 동등화함
  - 유효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 재수생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3년 이상 하면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시험 내용의 변화에 따른 시험 성적의 가비 교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재수생 감소와 학생들의 수험 부담 감소 효과 기대
- 수능 성적 유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대학에서 융통성 있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김(이종승 외, 2004)

-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되지 않되, 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준에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최소 기초 학력(minimum competency)을 측정하는 표준화 기초학력 시험으로의 수능을 지향
-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교과로 하고, 시험 시행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응시 자격은 고교 1학년을 이수한 학생에게 부여. 시험 성적은 등급(5~9등급)을 제공하여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크지 않도록 함
- 수능 과목 축소, 응시 횟수 확대(연 2~3회), 수능 점수 유효 기간 연장(2~3년) 등을 제안(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 현행 수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동아일보, 2009. 10. 30.)
  - 학생의 수능 부담 경감(문화일보, 2009. 10. 31.)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효과(세계일보 사설, 2009, 11. 2.)
  - 교과부는 2009년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중장기 수능 체제 개편 프로젝트 의뢰, 2010년 3월 개편 시안 발표,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확정안 발표 예정. 2014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문화일보 2010. 1. 1.)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과 같이 단 1회 시험보다는 SAT와 ACT처럼 고2때부터 2회 이상 시험을 보고 성적 유효 기간이 늘게 되면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될 수 있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으로 대학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수하는 확률이 줄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2부터 수능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 차례 수능을 보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부담을 기증시킬 수 있음. 또한 수능 성적을 올릴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될 수 있음</li> <li>○ 적어도 한 번의 수능 성적을 확보하였으므로 더 쉽게 재수나 삼수를 결정할 수 있어 성적 유효 기간 확대가 오히려 재수생을 양산할 수도 있음</li> </ul>

- 따라서 수능 유효 기간 확대를 통한 기대 효과는 미국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SAT나 ACT 성적을 요구하듯 대입에서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만 확보하면 되는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성취 가능함
- 또한 수능 성적 유효 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검사 간의 상호 비교를 위한 검사 간 동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점수 체제도 점수의 의미가 매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 현재의 표준점수제의 변화가 필요함
- 미국의 SAT나 ACT에서 성적 유효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검사 점수 간 동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즉 SAT나 ACT에서는 동등화를 통해 검사 간 난이도를 조정하여 언제, 어떤 시험을 치르든지 척도점수 간 비교가 가능함. 또한 SAT의 경우, 최저 200점, 최고 800점, 평균 500점, 표준편차 100, 증분 10점, 구분점수 61개로 다른 시기의 검사 점수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함
- 동등화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검사 시기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게 됨. 이 경우 성적에 민감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험 시기가 다른 검사의 성적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나. 요약 및 시사점

- 수능 성적 유효 기간 확대는 수능의 성격, 복수 시행 가능성, 대입에서의 수능 성적 활용 등과 관련해서 결정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단순히 성적 유효 기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수능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수생 수가 감소하게 될지는 의문임
- 성적 유효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동등화가 이루어져야 함. 사전 검사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동등화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더불어 수능 성적의 최소 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대입에서의 수능 성적 활용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

## 〈참고 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10. 30.). 학교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제1기 자문회의 대통령보고회 정책의제 자료, 제2호 안건.
- 방승배(2009. 10. 31.). 수능시험 연 2~3회 실시 검토. **문화일보**. 자료 출처: <http://www.munhwa.com> (검색일 2010. 02. 10.)
- 백순근(2003. 01. 10.). 수능 연2회 실시해야. **문화일보**. 자료 출처: <http://www.munhwa.com> (검색일 2010. 02. 10.)
- 사설-수능, 난이도 조정 표준화 작업 선결돼야(2009. 11. 2.). **세계일보**. 자료 출처: <http://www.segye.com> (검색일 2010. 02. 10.)
- 송길호(2010. 01. 01.) 수능 성적 유효 기간 2~3년으로 확대 검토. **문화일보**. 자료 출처: <http://www.munhwa.com> (검색일 2010. 02. 10.)
- 수능성적 유효 기간 연장 검토(2009. 10. 30.). **동아일보**. 자료 출처: <http://www.donga.com> (검색일 2010. 02. 10.)
- 이종승, 박도순, 이종재, 남명호, 김홍원, 김정겸, 백순근, 김병진, 최원혜(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승, 김성훈, 허숙, 이종재(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영역/선택 과목 간 표준점수의 차이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의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다름. 따라서 상위집단 학생들 비교가 어렵고, 영역 간 과목 간 점수 분포의 차이로 표준점수 범위가 달라짐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대두되었음(한겨레신문, 2009. 12. 7.)
-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국민일보, 2009. 12. 7.; 서울신문, 2009. 12. 9.)
- 시험의 난이도 차이와 응시집단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예로 수리 ‘가’형 보다는 수리 ‘나’형으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아랍어’ 선택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종승, 2009)

### (2) 표준점수의 최고점자가 급증하면서 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 대두(시험 점수의 변별력 문제)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표준점수의 특성상 출제 난이도에 따라 상위권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표준점수의 최고점이 내려가게 됨. 수리 ‘나’형의 만점자가 8배 급증하고 변별력은 떨어짐(한국일보, 2009. 12. 8; 세계일보, 2009. 12. 7.)
- 최상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이 수험생들 간의 차이를 제대로 변별해내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험 당일 얼마나 ‘실수’를 하는 가를 재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이종승, 2009)

### (3) 등급제의 쟁점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원점수 또는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등급으로 묶어서 능력 차이가 큰 데도 같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차이가 없는 데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반재천, 2008)
- 원점수는 올랐는데 등급은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한 학생과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고민 증가(한국일보, 2009. 12. 8.)

## 나. 제기되고 있는 점수 체제(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 (1) 표준점수 체제

- 모든 영역/과목이 임의 선택이어서 각 영역/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역/과목 간에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원점수로는 영역/과목 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못해서 표준점수제를 도입함.
- 선택 과목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여 과목 내의 상대적 서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함
- 수험생 개인의 특수한 능력이나 적성을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가 잘 반영되는 점수 체제임
- 산출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함

### (2) 장·단점 및 고려사항

산출방식	장점	단점
현 표준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상 및 최하위권을 제외한 분포의 대다수 부분에서는 선택 과목별 표준점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음</li><li>- 원점수분포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변환점수로 표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점수 분포에 따라 영역 및 과목 간에 표준점수 범위가 매우 다를 수 있음</li><li>- 예로 서로 다른 선택 과목에서 원점수 만점을 받았지만 각 선택 과목에서의 해당 표준점수는 큰 차이를 보임</li></ul>

백분위를 이용한 면적변환 표준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 변환에 의한 표준점수의 최고점 격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li> <li>- 일반 대중(수험생 및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점수 분포가 편포가 심할수록 상위 집단의 경우 동점자 산출이 불가피함</li> <li>- 백분위 산출 방식에 따라 원점수 만점 최고점수와 최고점 바로 아래 점수 간 간격이 임의로 커질 수 있음</li> </ul>
보간법 활용의 표준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 및 비선형 변환절차를 절충한 방식으로 선택 과목별 난이도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상 파행이 불가피함</li> <li>- 동일 교과 내에서도 능력 분포대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함</li> <li>- 원점수 분포 변형의 정당성 시비</li> <li>- 일반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방안임</li> </ul>

#### 다. 요약 및 시사점

- 수능의 점수 체제는 수능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해 대입에서의 수능 성적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함
- 또한 수험생, 학부모, 대학에 보고될 최종 점수는 활용하는 누구나 검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내포해야함
- 수능의 점수 체제의 변화는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대학 및 평가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
- 수능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변화 방향에 따라 규준점수가 아닌 준거점수로의 변환 추진 가능성도 논의가 필요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현재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표준점수에서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척도점수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SAT Subject Test는 영어, 역사, 수학, 과학, 외국어 5개 영역 17과목으로 각 분야에 관한 독특한 지식의 깊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각 과목별로 검사 시간은 60분으로 200~800점의 척도점수가 부여되지만 과목 간의 점수를 조정하고 있지 않음. 즉 서로 다른 선택 과목 점수에 대한 비교 점수 조정보다

는 동일 선택 과목 내에서 능력의 차이와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문헌〉

- 모규엽(2009. 12. 07.). 만점 크게 늘어 변별력 약화, 탐구 및 제2외국어 난이도 조절 실패. **국민일보**.
- 유선희(2009. 12. 07.). 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 선택과목 점수 차 여진, 제2외국어 아랍어 열풍 심각, 등급 공백은 없었지만 1등급 증가. **한겨레신문**.
- 서태열(2009). 공교육 발전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미래 전망에 대한 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144-149.
- 이태무(2009. 12. 08.). 원점수가 올랐는데 등급은 떨어졌음 표준점수의 문제. **한국일보**.
- 이종승(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pp. 3-2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한국교총 교육정책토론회(2008). **한국 교육평가정책의 현안과 과제**. pp. 117-170.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계열 구분 찬성안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대부분 대학의 교차 지원 허용에 따라 ‘수리 가’ 및 ‘과학’을 선택하지 않고도 이공계 대학 진학이 가능함
  - 4년제 대학 198개교 중 53개교만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59개교에서는 가산점만 부여하는 실정임
  - 이과생도 ‘수리 나’형만 시험보고 대학을 가는 현실임
  - ‘수리 가’형을 본 학생과 ‘수리 나’형을 본 학생이 점수와 실력이 맞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고, 변별이 안 되는 상황임
- 이공계 대학에서 ‘수리 가’형을 본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능 체제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조차도 문과 과목인 사회탐구 과목만 시험보고 이공계 대학을 가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이공계 대학 교수들이 지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센터시험에서 과학 선택 비율이 69%인 반면, 수능의 경우는 과학탐구 선택 비율이 33%에 불과함. 국가적으로도 이공계 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이양락 외, 2009).
  - 일본의 경우는 인문계열에서도 센터시험의 이과 과목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음
-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다루는 언어 영역이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공계 대학에서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서 대학 수학에 도움이 됨</li> <li>○ 기초 수학 과학 과목에 충실한 이공계 저변 인력을 확대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 문제도 약간은 해결할 수 있음</li> <li>○ 인문·자연 공통으로 수학 I (혹은 공통수학 과목)을 시험 치르게 하여 전체적으로 수학 실력을 변별할 수 있게 함. 이로 인해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을 본 학생들 사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교차 지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열 구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나 계열 구분해서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선택을 중시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맞지 않음</li> <li>○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수학·과학 과목이 있고, 심화과목은 선택해서 보게 하고 각 대학에서 심화과목 점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능 과목 수 축소와 상충하는 모순이 있어 수능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함</li> </ul>

(2) 계열 구분 반대안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우리 시대는 바야흐로 ‘지식 통섭(通涉)’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상호 소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차원의 문제해결을 제공해주는 시대임
- 학문에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실연 제5차 포럼, 2006)이 있음
  - 국문학은 인문계열 학문이라 할 수 있고 물리학은 자연계열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지리학, 해양학, 환경학, 전산학, 정보학, 건축학, 도시학만 해도 구분이 어려움

- 일단 한쪽으로 분류되면 다른 쪽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과목들이 학습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용도 왜곡돼 반쪽짜리 학문이 되기 십상임
- 20세기가 전문화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임
  -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고가 지식사회의 무기임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등 6개 과학기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발표된 성명서에서 6개 과학기술단체는 수학,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과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각각 반드시 2과목 이상씩 이수하게 할 것을 주장함(제5회 과실연 포럼, 2006. 5. 24.)
-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2010년도 대입선발전형부터 인문과 자연계 신입생을 구분하지 않고 뽑는 방안 등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함(MBC 방송, 2007. 3. 15.)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통섭의 시대에 맞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선발할 때 계열 구분 없이 각 과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면 되나 대학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li> <li>○ 대학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신입생을 구분하지 않고 뽑는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과학탐구 과목보다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 본 학생들이 자연계열 대학에 지원할 확률이 커져서 부작용이 따름</li> <li>○ 수능에서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각각 반드시 2과목 이상씩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는 수능 과목 수 축소나 수능 성격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함</li> </ul>

## 나. 요약 및 시사점

- 계열 구분 찬성안에는 이공계 대학에서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서 대학 수학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 계열 구분 반대안에는 지식 통섭의 시대에 맞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계열 구분 찬성안이나 반대안 모두 수능 성격이나 수능 과목 수 축소 등과 함께 논의되고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참고 문헌〉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남진영, 서보억, 김용명, 박태준,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이정우, 신항수, 강대현, 신일용, 최혁준, 김동영, 동효관, 구자욱, 김현경, 김진구, 함승연, 박영수,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 손민정, 장호성, 윤영순, 김새환 (2009). **일본 대학 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46.

서울대, 통합논술 강화해 계열 통합 선발(2007. 3. 15.). MBC 방송. 자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214&aid=0000034782> (검색일 2010. 02. 10.)

제5회 과실연 포럼(2006. 5. 24). 주제: 문·이과 꼭 부분해야 하나 지식시대 균형잡힌 교육을 위한 토론회. 자료 출처: [http://www.feelsci.org/bbs/board.php?bo\\_table=event&wr\\_id=31&page=&page=](http://www.feelsci.org/bbs/board.php?bo_table=event&wr_id=31&page=&page=) (검색일 2010. 02. 09.)

## 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sup>9)</sup>의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내용

###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추진 경과

- 영어교육 혁신 방안 수립 발표(교육인적자원부, 2006. 11. 3.)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 인증제도 2009년 이후 도입할 계획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말하기·듣기·쓰기 등 실용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
  - 평가도구의 개발과 시범 운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추진
  - 전문가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국가 차원의 영어능력평가도구 개발에 83% 찬성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초등 3등급(~초3, 초4~5, 초6) △중등 4등급(중 1~2, 중3~고1, 고2~3, 고3~) △성인 3등급으로 운영, 인터넷 기반 평가(iBT) 시행 계획 발표(영어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공동 주최, 2006. 12. 11.)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기본 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2007. 07. 30.)
  - 2009년부터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 2011년부터 일반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의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기본 계획’ 발표
  - 평가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영역으로 구성하기로 함
  - 시험은 1년에 4차례 이상 실시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iBT 방식으로 시행
  - 토익과 토플 등 해외에서 개발한 영어시험이 고교와 대학진학, 공무원임용, 취업 및 승진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돼 지난해만 269만 명이 응시, 국내시장의 76% 정도를 점유, 특히 초·중·고생이 56만 6천명 응시하는 상황(한국일보, 2007. 07. 30.)

9) 언론에서 이 시험을 영어인증시험, 영어능력인증시험, 국가영어능력시험 등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안병만 장관(2008. 12. 18.)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함

-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계획’ 발표(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18.)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2009년부터 문항 개발 및 문제은행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11년까지 예비검사, 시범 시행을 거쳐 2012년부터 정식 실시
  - 예비검사는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테스트로 2009년 5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3만여 명의 학생을 표집해 실시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1급은 대학 2~3학년 수준으로 대학 졸업이나 취업, 유학 시에 토익, 토플 등을 대체하는 용도로, 2, 3급은 대학교의 학과별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고등학생 평가시험 용도로 개발할 예정
  - 학교 단위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쓰기 평가도구를 개발, 보급
  - 시험 성적은 1급의 경우 점수로 제공하고 2, 3급은 사교육 유발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시키는 ‘Pass or Fail’ 방식을 검토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입 수시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2010. 01. 07.)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수시 전형 자료로 활용, 수능을 대체할지 여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에 결정하여 2016학년도부터는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문항 개발 작업을 하고 2009년에 약 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시험을 실시함
  - 매년 5~6회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읽기와 듣기는 등급제로, 말하기와 쓰기는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통과제로 운용될 계획임(동아일보, 2010. 01. 08.)

## (2) 주요 쟁점 내용

- “수능영어, 자격시험으로 바꾸자”(포커스신문사, 2009. 11. 03.)
  - 학생과 학부모는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바꿀 경우, 수시로 응시, 점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과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56.7%)
  - 초·중·고 학생 영어인증시험(토플, 토익, 텡스) 응시자가 2005년 11만3077명, 2006년 13만9197명(23.1% 증가), 2007년 22만673명(58.5% 증가) 등으로 급증세

- “미리 보는 국가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한국일보, 2007. 12. 11.)
  - 영어교육 전문가와 대학 입학처 관계자,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어인증시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플 성적이 실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68%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대학 입시, 입사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는 해외 개발 영어시험에 대해 59.8%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설문 참가자 62.8%가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 도입에 찬성
  - 2006년 국내 영어시험 응시자의 76.4%인 206만 명이 토익, 토플 시험에 응시, 응시료만 230억 원을 ETS에 지불(토플은 169억 원, 토익은 61억 원)
  - 일본은 1963년 문부과학성 주최로 STEP을 개발해 연간 250만 명의 이용, 중국 역시 1987년 교육부에서 자체 개발한 CET시험에 연간 450만 명 응시, 2000년 대만은 교육부 주도로 개발한 EPT 시험에 매년 50만 명 응시
  - 영어능력 측정 시험에서 토익, 토플 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2%, 대만 30%, 일본은 39%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은 무려 76% 이상
  - 현재 국내에서 토익, 토플 시험이 차지하는 시장의 50%정도를 국가공인시험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15억 원 이상의 외화 유출 대체 효과
- ‘한국형 토익’으로 수능 대체 검토...“사교육비 유발 우려”(민중의 소리, 2010. 01. 07.)
  - 엄민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수능 영어를 국가인증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자격 고사화’하는 방안과 토익, 토플 시험처럼 ‘점수화’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
  - ‘자격 고사화’ 방안은 현재 영어 수업이 수능(특히 독해)에만 치중하고 있으므로 대학 입시에서 영어 시험을 자격고사화하면 실용 중심의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초·중등 영어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에 ‘점수화’ 방안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영어 공부와 별도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를 더 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여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됨
- “대입에 참고”... 수능영어와 동시 준비 ‘이중고’ (서울신문, 2008. 12. 19.)
- 교과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영어 시험 대체 여부를 2012년에 결정하기로 함
- 2012년은 대입 완전자율화가 예정된 시기로 대학들은 영어능력평가시험 결과를 입시에 반영할 것임
- 따라서 2012년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든 않든 대학이 이 시험의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학생들이 2012년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수능 영어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학습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의 4기능(듣기·읽기·말하기·쓰기)을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영어 교수·학습 이론에 부합함</li> <li>○ 현행 수능 영어 시험과 달리 표현 능력(말하기·쓰기)도 직접 평가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임<sup>10)</sup></li> <li>○ 말하기·쓰기 능력을 직접 평가함으로써<sup>11)</sup> 학생들은 말하기·쓰기에 강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고, 교실수업에서도 이에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됨(환류효과)</li> <li>○ 말하기·쓰기 채점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li> <li>○ iBT 방식으로 2~3회의 복수 응시 기회 제공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입장에서는 수시로 시험에 응시하며 향상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자기 주도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음</li> <li>○ 토플/토익 등 해외에서 개발된 시험의 과도한 의존에 따른 외화유출 경감 효과</li> </ul>
----	---

10) ETS에서 주관하는 TSE(Test of Spoken English(60점 만점))에서 한국은 평균 40점으로 중국, 일

단점 및  
고려사항

- 교사의 강의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접수 보고 방식을 등급 또는 표준점수로 할 것인지 준거평가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전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사교육비가 증가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변별력 약화로 대학 입시에서 대학별 고사 같은 또 다른 시험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
- 복수 시행 및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에 따른 문항 보안 문제
-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을 현재 추진 중인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매년 6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고2부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임) 연 10회 이상에 걸쳐 수험생 당 2~3회를 응시한다면, 연간 응시생의 수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2012년까지 복수(연간 10회 이상) 시행에 필요한 각 등급별 문항 수를 충분히 확보
- 말하기·쓰기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출제자 및 채점자를 확보
- 최적의 동등화 시스템을 통한 시험 간 동등화를 담보
- iBT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최적화된 iBT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이 완비
  - 시험 실행 및 채점 시스템, 시험 접수 및 결과와 관련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보안시스템(사용자, 네트워크, 서버 보안, 웹 서비스 보안)이 완비
- iBT로 시행되므로 충분한 숫자의 인증된 시험장을 확보
  - 100만 명의 수험생이 연간 총 10회에 걸쳐 시행되는 시험에 2~3회씩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1회에 20만 명 이상이 시

본, 태국보다 더 낮아 108개국 중 105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함. 또한 영어권 국가로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IELTS (9점 만점)에서도 말하기 평균 5.28을 얻어 40개국 중 37위로 하위권을 차지함(이의갑 외, 2009)

- 11) 표현능력(말하기·쓰기)이 취약한 근본적 이유로는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쓰기 등 표현능력을 지도하도록 편성되어 있지만, 평가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말하기·쓰기 학습에 대한 동기가 낮으며, 수업 시간도 읽기/문법에 치중(85%)된 반면, 회화/작문에는 15% 정도 배분됨(이의갑 외, 2009)

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어도 5천개 (시험장 1개당 40명 응시 가능으로 계산)의 iBT 전용 시험장이 완비, 또한 수험생이 iBT 시스템에 익숙할 수 있도록 각 학교당 적어도 1개씩 iBT 실습 시험실을 구축

## 다. 요약, 시사점 및 정책적 대안

### (1) 요약 및 시사점

- 현행 간접 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과 달리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은 말하기·쓰기의 직접 평가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말하기·쓰기 교수 학습 방법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표현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
- 말하기·쓰기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실재성(authenticity)있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4기능에 대한 균형 있는 수업을 하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연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10회에 걸쳐 한 명당 2~3회를 응시할 경우,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이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2012년까지 복수(연간 10회 이상) 시행에 필요한 각 급별 문항수를 확보
  - 말하기·쓰기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출제자 및 채점자를 확보
  - 최적의 동등화 시스템을 통한 시험 간 동등화를 담보
  - iBT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최적화된 iBT 운영 및 보안 프로그램이 완비
  - iBT로 시행되므로 전국적으로 충분한 숫자의 인증된 시험장을 확보(적어도 500개 이상)
- iBT 방식의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이 현행 수능 영어 시험에 비해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인적, 기술적, 물리적 전제 조건과 기반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2) 정책적 대안

(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영어 시험의 완전 대체(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을 완전 대체함으로써 독자적 시험 체제를 갖게 됨</li> <li>○ 이에 따라 영어 시험의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최적으로 반영한 시험을 개발, 시행, 운영할 수 있음</li> <li>○ 수능과 시험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li> <li>○ 수능이 안고 있는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li> <li>○ 이에 따라 수능 체제의 변화에 융통성을 줄 수 있음(각 영역 간 시험 시간 배당, 문항 수 확대 등)</li> <li>○ 시험 시행에서 생겨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이 분산됨</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전제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높음</li> <li>○ 다른 영역과 분리됨으로써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됨</li> <li>○ 완전 대체 시행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li> </ul>

(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영어 시험의 부분 대체(안)

- ▲ 듣기·읽기 영역 : 현행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이 담당
- ▲ 말하기·쓰기 영역 : 새로 개발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담당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영어 시험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상보적 관계’에 있음</li> <li>○ 즉, 수능 영어 시험은 지난 15년간 시행으로 안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만, 간접 평가 방식으로 말하기·쓰기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 낮음</li> <li>○ 한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말하기·쓰기능력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실재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대한 환류효과로서 교</li> </ul>
----	---

	<p>육과정 운영, 영어 교수·학습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준비 미비 또는 시행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같은 두 시험의 상보적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듣기·읽기 영역은 현행 수능 영어 시험이 담당하고, 말하기·쓰기 영역은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이 담당하도록 함</li> <li>○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이 시행 초기에 수능과 부분 대체를 통한 과도기적 단계를 거침으로서 시험 시행 경험을 축적하고 시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li> <li>○ 수능 대체에 들어가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 가능함</li> <li>○ 말하기·쓰기 평가에 집중할 수 있음으로써 보다 양질의 문항을 개발할 수 있고, 보다 완벽한 시험 체제 및 시행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li> <li>○ 완전 대체보다 부분 대체가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담보할 수 있음</li> <li>○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의 취지나 목적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음</li> </ul>
<p>단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입시에 ‘내신영어+수능영어+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이 모두 반영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가</li> <li>○ 사교육 시장은 이를 빌미로 과장 광고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음</li> <li>○ 그러나 평가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완전 대체나 부분 대체나 학습자의 실제 학습 양이나 부담은 차이가 없음</li> <li>○ 부분 대체 시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li> </ul>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11. 3.). 영어교육 혁신 방안 수립 발표.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07. 30.). 국가 영어능력평가지험 도입 기본 계획 수립 발표.

###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12. 18.).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 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01. 07.).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대입 수시에 반영 발표. **보도자료**.
- 김회균(2010. 01. 07.). 2013년 대입에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반영. **동아일보**. p. A14.
- 박영순(2009. 11. 03.). 수능영어, 자격시험으로 바꾸자. **포커스신문사**. 자료 출처: <http://www.fnn.co.kr/content.asp?aid=f0ea15ad99444c40a9fcc9932dc4487e&nPage=&strDate=2010-02-06>. (검색일 2010. 02. 21.)
- 박현갑(2008. 12. 19.). ‘대입에 참고’... 수능영어와 동시 준비 ‘이중고’. **서울신문**. 자료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검색일 2010. 02. 21.)
- 영어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2006. 12.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공동주체 학술 세미나 자료집**.
- 윤선희(2007. 12. 11.). 미리 보는 국가공인 영어능력인증시험. **한국일보**. 자료 출처: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712/wk2007121112134482190.htm> (검색일 2010. 02. 21.)
- 이의갑, 김진석, 이병천(2009). **말하기·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5-4.
- 정지영(2010. 01. 07.). ‘한국형 토익’으로 수능대체 검토...“사교육비 유발 우려”. **민중의 소리**. 자료 출처: <http://www.vop.co.kr/A00000277822.html>. (검색일 2010. 02. 21.)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시험의 난이도 차이와 응시 집단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아랍어 선택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00점으로 다른 선택과목 최고점(대체로 70~80점)과 차이가 남(이종승 외, 2009)
  -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탐구 영역에서는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가 최대 31점까지 벌어지면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여전히 나타남(이석호, 2009. 12. 8. 광주드림)
  - 다른 영역이나 과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점수 100점이 아랍어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649명이 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이경희, 2009. 12. 7. 세계일보)

#####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li> <li>○ 7차 교육과정 이후 시행된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이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선발 자료로서의 타당성은 떨어짐</li> <li>○ 현행 체제를 전반적으로 유지할 경우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움. 예를 들어 선택과목을 통</li> </ul>

합하여 출제 과목을 축소해도 여전히 유·불리 문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대학의 학부 및 학과별로 사전에 요구하는 과목을 세부적으로 공지할 경우 동일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이 이루어져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2) 선택과목 편중 문제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선택과목 중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음 (이종승, 2009)
  - 특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아랍어’ 선택에 매우 심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종승, 2009)
  - 수능 아랍어 응시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2010학년도 결과를 보면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아랍어에 응시한 수험생은 5만1141명으로 이 영역 전체 응시자의 절반에 가까운 42.3%에 달함. 이는 지난해 수능(29.4%)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임(이경희, 2009. 12. 7. 세계일보)

###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고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의 운영 취지에 맞음
단점 및 고려 사항	○ 현행 체제를 전반적으로 유지할 경우 선택과목 간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움.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출제 과목을 축소해도 여전히 편중 문제는 다른 형

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만약 대학의 학부 및 학과별로 사전에 요구하는 과목을 세부적으로 공지할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진학하기 원하는 학부 및 학과 전공에 맞는 선택과목을 택하게 되어 표준점수 차이에 따른 선택과목 편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 나. 요약 및 시사점

- 현행 체제를 전반적으로 유지할 경우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세부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영역의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출제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이 실현되어도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임
- 대학의 학부 및 학과별로 사전에 요구하는 과목을 세부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선택과목 유·불리 및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 <참고 문헌>

- 이종승(200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안 문제와 미래 전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2.
- 이경희(2009. 12. 7). 제2외국어 ‘쏠림’ 심화...전체 응시자의 42% 아랍어 선택, **세계일보**, 자료 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07003790&subctg1=&subctg2=> (검색일: 2010. 2. 11.)
- 이석호(2009. 12. 8). 과목별 만점자 크게 늘어, **광주드림**, 자료 출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12852&news\\_type=202&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2](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12852&news_type=202&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검색일: 2010. 2. 11.)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대입에서 수능 비중 축소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2008학년도 수능부터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폐지하고 등급(9등급)만 제공(교육 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4. 08. 26.)
  -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능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폐지하고 등급만 제공하여 대입에서 수능의 비중 축소 유도
  - 입학사정관제 도입,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 전형 도입,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국가유공자 손·자녀, 소년소녀 가장, 농·어촌 특별 전형 등)
- 內申 비중 높아진다 修能 점수 없애고 9등급제로... 중요도 낮아져(박중현, 2004. 08. 27. 조선일보)
  - 2008학년도부터 수능 시험 점수제가 폐지되고 9단계의 등급제로 변화. 수능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내신)는 현재의 성취도(수우미양가) 위주 절대평가식 표기방법을 버리고, 9단계의 석차등급과 과목별 원점수(평균과 표준편차도 병기)를 제공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
  - ‘내신 부풀리기’ 차단, 대학들이 대입 전형 때 내신 반영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수능 등급제 혼란은 없었지만...(한겨레신문, 2007. 12. 08.)
  - 보수 언론과 사교육 단체들의 주장과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나 그런 혼란과 불만은 0.01점차로 당락이 결정될 때보다 심하진 않음
  - 등급제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와 달리, 동점자 속출 등으로 인해 등급 공백 같은 부작용은 없었고,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변별력에도 문제가 없었음

- 등급 경계선에 있는 수험생의 불만도 있겠으나 학생을 서열화하는 점수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내신 등 다양한 전형자료의 비중을 높여 가능성과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소외층 배려 등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조처
  - 요컨대 학생 선발에서 수능을 보조로 하고, 내신을 중심으로 하도록 해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를 이루려는 것
  - 그러나 대학의 비협조 때문에 등급제 취지 실현 어려움.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수능의 비중을 높였고 내신은 무력화함. 때문에 등급제의 효과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 경쟁을 다소 느슨한 등급 경쟁으로 바꾸는 데 그침
- 대입 자율화와 대학 입학 정책(민경찬, 2008)
- 새 정부의 대입자율화 3단계 정책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비중 낮아지고 수능과 본고사 중심이 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점수 위주 교육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대입 정책이 계속 맴돌기 현상을 반복했던 근본 원인은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 개인별 특기 등 여러 전형자료를 점수화하고 단순히 총점 서열 순으로 선발했기 때문임
  - 학생의 능력, 특성, 소양을 총점화하였기 때문에, 고교 교육이 점수중심으로 왜곡되었고 학생 개인과 교육받는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선진 주요 대학들처럼 총점제가 아닌 학생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제도도 허용되어야 함
- 대학입학 전형 자율화의 바른 길 모색: 대학과 정부의 역할(강태중, 2008)
- 이제까지 대입 전형에 관한 논의는 사교육의 문제나 학교 교육 정상화의 문제에 대한 ‘정책의 공식(公式)’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왔음
  - 이를테면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을(제어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작업은 경쟁에 관련된 학생 변별의 세밀함을 무디게 하고 입학 경쟁의 첨예함을 완화하며, 전형자료를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 국한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공식임

- 수능이나 내신 성적의 등급제를 도입하고 대학별 고사를 억제하는 방안 등은 바로 이러한 공식에 따라 도출해낸 것들이었음
- 대입 전형이 자율화된 사태에서도 대학들에게 이런 ‘공식’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이유는 없을 것임. 그것은 자율화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는 일일 것이기 때문임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적 관점에서 대입 전형이 수능에 치중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능 영향력 축소는 대입 전형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임</li> <li>○ 수능 위주 입시 체제에서는 수능의 성격이나 출제 방향에 따라 학교 교육 전체가 영향을 받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수능 영향력을 줄이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줄임으로써 소수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나친 입시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어차피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임</li> <li>○ 또한 수능의 대안으로 학교 내신을 강화할 경우 내신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므로 사교육 경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신 강화는 내신 과외를 덧붙였을 뿐임. 전국의 입시·보습 학원은 2003년 말 1만8815개에서 지난해 말 2만9005개로 1만 곳 이상이 늘었음(김회평, 2007. 11. 23. 문화일보)</li> </ul> </li> <li>○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의 문제점(이범-거꾸로 공부법, 2007. 11. 11. 한겨레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 수요 팽창. 교육선진국들의 참여형·소통형 교육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에서는 학교가 학원을 따라가기 어려움</li> <li>- 내신 성적의 ‘낙인 효과’. 수능은 초반의 모의고사 성적이 기</li> </ul> </li> </ul>

대에 못 미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저학년 때 받은 낮은 내신 성적은 교정 불가능한 절망의 원천

- 수능에 비해 훨씬 높은 경쟁의 체감 강도. 동료들 간의 경쟁이므로 시험지를 몰래 훑쳐내거나 동료의 노트를 없애버리려는 유혹이 생기는 것도 당연
- 비평준화지역 상위권 중학생을 비인기 고교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기형적인 진학 지도 유발 가능성
- 고교별 학력 격차 문제 발생. 이를 보정하기 위한 고교 등급제 등의 도입 주장 대두 가능성

## 나. 요약 및 시사점

- 2008학년도에 수능의 대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등급만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1회 시행에 그침
  - 이는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동되지 않은 일종의 표준화 시험에 등급제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나아가 미세한 점수 차이를 실력 차이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감안하지 않고 선불리 등급제를 도입한 결과(강영혜, 2008)
- 대입 경쟁이 치열하고 상대평가 성격의 대입 전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변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자료로서의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으로 대입이 결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을 이유로 수능 약화와 내신 비중 강화에 대한 주장은 상존
- 그러나 내신의 강화가 내신의 변별력을 믿지 못하는 대학의 논술시험이나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의 도입으로 ‘수능+내신+대학별 고사’와 같이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면 또다시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 초래

- 외국에서도 내신 성적을 전형요소로서 일정 수준 활용하기는 하나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은 하지 않음. 대학이 평준화된 프랑스에서도 내신 성적이 아닌 국가고시(바칼로레아)로 대입 자격을 부여함
- 내신 성적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하에서 보인 학업성취도로서, 3년간의 성적이 누적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학업에 대한 성실성의 지표로서 가치를 지님. 따라서 대입 전형 트랙을 다변화하는 것이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이나 기타 전형 요소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직함
  - 서울대 신입생의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에서, 정시모집 일반전형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중시되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 학생들의 학점이 더 높음(김미숙 외, 2006). 또한 출신 지역이 서울·경기와 기타 지역이 반반으로서 지역별 안배 효과가 있었음(박수찬 외, 2009. 2. 24. 조선일보)
  - 따라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주입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입학 정원의 일부를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전형 방법에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참고 문헌〉

- 강영혜(2008). 대입전형의 사회적 효율성.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08-18. pp. 129-161.
- 강태중(2008). 대학입학 전형 자율화의 바른 길 모색: 대학과 정부의 역할.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08-18. pp. 23-44.
- 교육인적자원부(2004. 8. 26).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 발표. **보도자료**.
-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이희숙, 황여정(2006).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2006-02-01.
- 김희평(2007. 11. 23). <시론> 수능 등급제-미분양 '대란'. **문화일보**. 자료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2301033437076002> (검색

일: 2010. 02. 04.)

- 민경찬(2008). 대학 자율화와 대학입학정책. **대입자율화시대의 대입전형제도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08-18. pp. 3-21.
- 박수찬, 김동현, 이석호(2009. 02. 24.).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정시모집’보다 공부 잘했다. **조선일보**, pp. 종합A1, 종합A10.
- 박중현(2004. 08. 27). 內申 비중 높아진다 修能 점수 없애고 9등급제로... 중요도 낮아져. **조선일보**, p. 종합A1.
- 수능등급제 혼란은 없었지만...(2007. 12. 08.). 사설. **한겨레신문**, p. 31.
- 이범(2007. 11. 11). ‘내신위주 선발’ 긍정적 효과 살리는 길. **한겨레신문**.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49285.html> (검색일: 2010. 02. 12.)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듣기 문항의 무용론 (문제 제기)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외국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자국어 시험과목 중에 듣기 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음
  - 미국의 SAT나 ACT, 영국의 GCSE나 GCE, 일본의 대학 입시센터시험, 중국의 통일시험이나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독일의 아비투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등에서 듣기 평가를 하지 않음(이종승 외, 2004; 이양락 외, 2008; 이양락 외, 2009)
- 수능 언어 영역의 듣기 문항이 학교 현장의 국어 수업에 기여한 성과가 적음. 국어과 교수·학습에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학교 수업에서 듣기 평가를 위한 대비가 적음
  -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논문이 없음. 반면에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는 듣기 평가가 교수·학습에 미치는 환류효과나 시행 효과에 관한 논문이 있음(정행, 2006; 김일홍, 2006)
- 수능 언어 영역 듣기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
  -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논문(박종훈, 2009; 이정화, 2009)
  - 그동안 출제된 듣기 평가 문항이 수능 언어 영역이 추구하는 다양한 사고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특정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한 논문(진혜림, 2006; 김봉운, 2008)
  - 질문지와 선택지를 글로 제시하고 있어 듣기 평가가 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논문(최주원, 2005)

- 듣기 평가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 다른 영역에 비해 쉽다는 점을 지적한 논문 (서혁, 1999)
- 실제적인 담화 상황과 맞지 않는, 인위적이며 부자연스런 소통 상황을 전제하여 정확한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논문(임철성 외, 2002; 심윤희, 2002). 즉 현재의 듣기 평가에서는 시각적인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없으며, 일회적인 일방적 방송으로 들은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음
- 현행 듣기 문항의 평가 요소는 대부분 읽기 영역에서도 측정 가능한 것임. 굳이 듣기 문항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실제적인 듣기 능력은 대학에서 면접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소음 발생, 감독의 어려움, 부정행위 등 시행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함
  - 감독 교사의 발자국 소리, 옆 사람의 재채기 소리, 인근 고사장의 소음 등으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민원을 평가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에 제기함
  - 2000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평가에서 서울의 13개 고사장에서 라디오의 수신 장애로 인해 재시험이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 시비 등의 반발이 발생함(홍성철, 1999. 11. 19. 동아일보)
  - 수능 듣기 평가에서 방송 시설이 고장 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 지방 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손진석, 2009. 9. 14. 조선일보)
  - 고사장을 준비, 관리, 감독을 하는 인력들이 시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듣기 평가의 사고 발생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이영관, 2005)
- 수능 듣기 평가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을 금지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치름(방준식, 1993. 8. 17. 조선일보)
  - 각 항공사 종합통제실에서는 수능 당일 언어 영역 듣기 평가를 위해 오전 8시 35분부터 25분간,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위해 오후 3시 45분부터 30분간 항공기를 통제함. 이 시간대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없도록 조정하고, 1만 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004학년도 수능의 경우

- 총 100편의 비행편이 결항하거나 시간을 조정함(김성애, 2005)
- 문항 제작과 테이프/CD 제작 보급, 고사실 장비 유지 보수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임
    -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녹음 용역과 테이프/CD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모의 평가와 수능을 합해 총 3억1360만 원임. 이중에서 언어 영역이 약 40%, 외국어(영어) 영역이 약 60%를 차지하므로 한해에 약 1억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됨
    - 2001학년도의 경우 총 26억 원을 들여 1100개 시험장의 앰프나 스피커를 교체, 보수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시험장마다 공급함. 또한 2억 원을 들여 시험장마다 카세트라디오 2대, 녹음테이프 4개씩 나눠 줌(지원선, 2000. 3. 29. 세계일보)
  - 수능이 대학수학 적성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된다면 교육과정과의 직접적 연계성에서 벗어나 읽기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단위 표준화 검사에서 효율적임
    - 수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차(1990. 12. 19.), 2차(1991. 5. 24.), 3차(1991. 7. 11.) 실험평가까지는 듣기 평가가 없었지만, 4차(1991. 11. 27.) 실험평가부터 도입됨. 도입 배경은 수능 개발 초창기부터 논란이 되어 온 수능과 교육과정과의 관계 설정 문제 때문임. 즉 교육과정과 별개로 고차적 사고력만을 강조하면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컸음. 이에 따라 언어 영역은 사고력과 교육과정을 원만하게 조화시키는 조치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국어과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반영하게 됨(김대행, 2005)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 세계적으로 대규모 표준화 검사에서 자국어 과목 시험의 경우 듣기 평가를 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를 수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 평가의 평가 요소 중 많은 부분은 읽기를 비롯한 다른 영역의 평가에서 대체할 수 있으며 진정한 듣기 평가는 대학의 면접 등 다른 전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li> <li>○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물적, 사회적 비용을 줄여 평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li> <li>○ 시행상의 어려움과 민원 발생을 줄여 수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자국어 시험 유형이 사라짐</li> <li>○ 듣기 영역이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약화됨</li> <li>○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음성 언어적 의사소통을 측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li> </ul>

## (2) 듣기 문항의 유용론 (유지/발전 안)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대학에서의 학습능력 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듣기 평가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교육이 주로 강의라는 구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를 소화해 낼 수 있는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함(김대행, 2005)
  - 대학에서 학문하는 데 필요한 음성언어 의사소통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현재 듣기 문항이 5문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불균형임(박중훈, 2009)
- 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듣기 평가가 필요함
  -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6영역 중 말하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은 선다형 측정이 가능하므로 사고력과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듣기 평가가 필요함(김대행, 2005)

-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능 언어 영역에서 듣기가 폐지될 경우 고등학교에서 그나마 최소한으로라도 이루어지던 듣기·말하기 교육은 거의 사라질 것임
- 듣기가 언어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언어 능력 평가에 듣기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듣기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 발달의 기초를 이루면서 다른 영역의 언어 기능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함(유동엽, 2009)
  - 주의집중이 듣기의 전부인 양 생각되어 온 것은 잘못이며, 성공적인 듣기를 위해서는 인지적 기능과 정의적 태도가 모두 필요함. 따라서 듣기 기능의 신장을 위해서는 지도와 연습이 필요함(Chaney & Burk, 1998)
  - 언어 능력은 문자만이 아니라 음성언어로도 활발하게 영위된다는 점, 일상의 언어생활 가운데서도 특히 음성언어에서 비논리적인 행위가 많다는 점 등을 통해 듣기 평가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김대행, 2005)
- 언어 영역의 안정적 출제를 위해 듣기 평가가 필요함
  - 현재 듣기와 쓰기 문항은 교사가 출제하고 있고, 읽기 문항은 지문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교수가 출제하고 있음. 그간 듣기·쓰기 문항 출제 교사들은 자신의 문항 출제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출제한 문항에 대해 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적합성과 타당성을 출제된 내부에서 검토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음. 그런데 듣기 문항이 폐지된다면 그만큼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 수가 줄게 되어 이러한 출제된 내부 검토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수능 언어 영역에서 듣기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함
  - 주요 국가의 대학입학 시험의 자국어 영역에서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대학입학 시험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환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다른 나라의 경우, 대입 시험에 듣기 평가가 포함되든 안 되든 중등학교 자국어 교육에서 듣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 언어 영역

에서 듣기가 폐지될 경우 고등학교에서 그나마 최소한으로라도 이루어지던 자국어 듣기 교육은 거의 사라질 것임

- 학교 수업에서 듣기 평가를 위한 대비가 적은 것은 그간 수능 듣기 문항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재에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이 빈곤한 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출제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은 출제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교과서 및 교재와 관련된 부분은 듣기가 특화된 교재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듣기 문항의 평가 요소가 일견 읽기 문항의 평가 요소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언어 능력은 투입되는 언어 자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능력 요인에 차이가 남. 듣기 상황에서는 처리해야 할 언어가 발화 후 즉시 소멸되기 때문에 읽기에서처럼 독자가 이해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의미의 파악과 추론, 비판뿐만 아니라 고도의 주의 집중과 기억 유지 능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또한 음성언어 자료는 어휘, 문장 구조, 담화 전개 구조 등에서 문자언어 자료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음성언어를 처리하는 듣기 능력은 문자언어 자료를 처리하는 읽기 능력과 차이가 있음
- 시행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시행하여 왔고, 민원의 경우 외국어(영어) 영역에 비해 훨씬 적게 발생함
- 실제적인 담화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여 정확한 듣기 능력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수능 듣기 문항은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담화 상황을 문항으로 출제하고, 대본 역시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가깝도록 반복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음. 평가 상황과 실제 상황은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음. 듣기 문항이 실제 담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읽기 문항의 경우가 지문 길이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읽기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수능이 적성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듣기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함. 듣기 능력을 각 대학에서 면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면접에서의 듣기 대상은 ‘질문’에 한정되므로 각종 강의, 강연, 발표, 토의, 토론 등을 들어야 하는 대학수학능력으로서의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임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수능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함</li> <li>○ 자국어 언어활동의 각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중등 교육 정상화에 기여함</li> <li>○ 국어교육 전공 학자나 국어 교사 집단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음</li> <li>○ 듣기 문항 출제 교사들을 출제진 내부 검토에 활용할 수 있음</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사장 음향 시설 관리, 소음 단속, 감독의 불편함, 민원 발생 등 시행상의 어려움이 잔존함</li> <li>○ 듣기 평가에 사용하는 비용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없음</li> </ul>

**나. 요약 및 시사점**

- 수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없었지만 4차 실험평가부터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듣기 평가가 도입됨. 수능 시험의 성격과 관련하여 앞으로 언어 영역이 교육과정과 별개로 ‘적합성 평가’로 나아간다면 듣기 평가의 존재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함
- 다른 나라의 대학 입시에서 자국어 과목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 사례가 없으며, 높은 사회적 비용과 물적·인적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 수능의 듣기 평가가 학교 수업의 듣기 영역의 교수·학습에 환류되는 효과가 미미하며, 현행 듣기 평가 문항이 난이도, 시험 방식, 평가 요소 면에서 한계를

- 지니고 있어서 진정한 듣기능력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반면에, 국가의 대입시험에서 자국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이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가 불필요해서인지 시행상의 문제 때문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대입 환경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존재 문제 자체는 저작물이나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일부의 의견만으로 존재를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곤란함. 관련 집단(예컨대 학부모, 학생, 교사, 학생 선발권자 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문헌〉

- 김대행(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추이 변화-언어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봉운(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연구. 석사학위 논문, 금오공과대학교.
- 김성애(2005). 비행기도 꿈쩍 못 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일홍(2006). 전국단위 영어 듣기 평가의 시행효과 및 발전과제. **언어학**, 14(1), pp. 183-202.
- 박종훈(2009). 화법 교육과정과 수능 언어 영역 문항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화법 연구**, 15, pp. 153-182.
- 방준식(1993. 8. 17.). 전국 하늘 45분 동안 비행기 소리 멎는다. **조선일보**, p. 31.
- 서혁(1999). 듣기 능력 평가의 개선 방안. **선청어문**, 27, 249-277.
- 손진석(2009. 9. 14.). “수능 듣기 평가 방송시설 고장…수험생에 배상해야”. **조선일보**, p. A10.
- 심윤희(2002).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 유동엽(2009). 듣기 교육. 국어교육 미래 열기 편. **국어교육학개론(제3판)**. 삼지원.
- 이영관(2005). 영어 듣기 평가에 가슴 쓸어내리는 지구본부 담당자.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정화(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연구-5년간의 시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임철성, 최승권, 김정희, 심윤희(2002). **국어 선생님 듣기수업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 역락.
- 정행(2006). 시도교육청 주관 표준화된 영어 듣기 평가가 영어 교수학습에 미치는 환류효과. **언어학**, 14(3), pp. 177-194.
- 지원선(2000. 3. 29.). 2001학년도 수능 듣기 평가, '전파방송'서 '테이프'로 전환. **세계일보**, p. 21.
- 진혜림(2006).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최주원(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적합성 연구-질문지와 선택지 제시 방식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홍성철(1999. 11. 19.). “누구는 재시험 보게 하고...” 수능 듣기 평가 반발 확산. **동아일보**, p. X29.
- Chaney, A. L. & Burk, T. L.(1998). *Teaching Oral Communication in Grades K-8*. Allyn and Bacon.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계속교육 강화 정책이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기반 구축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기여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한국직업교육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전문계고 직업교육정책 결의대회’(2009. 12. 18)에서 전문계고 감축 및 직업탐구 영역 대폭 축소, 직업 영역 교과 인증도서 활용 등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직업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함(백하나, 2009. 12. 18. 뉴스천지)
  - 전문계 고등학교가 국가 산업을 보조할 인력을 양산한다는 특수성과 고등교육기회를 확보해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가장 큰 정체성을 무시한 정책으로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나 적용되는 진학률이란 원칙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신황호, 한국직업교육학회 상임공동대표)
  - 예전 실업계 고교일 때는 학교가 완성교육의 장이었지만 지금은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한다면서 왜 학생들이 진학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함(경남 아림고등학교 교사)
  -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전문계 고등학교가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함(수산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청에 근무하였던 모 시민)
- 전문계 고등학생 대학입학 문호 확대 정책은 전문계 고등학교 기피 현상 및 이로 인한 신입생 미달 사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기여하였음(교육인적자원부, 2001. 11.)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 각 이해 집단 모두 직업탐구 영역의 신설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들과 같이 보통교과만을 공부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진학 희망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및 전문교과에 대한 학습 의욕 고취, 우수한 학생들의 전문계 고등학교 유인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김해동 외, 2003)
-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한 대부분의 학교가 신입생 모집 경쟁률과 지원자 학업성적 수준이 동시에 올라가는 결과를 보이는 데에는 현대 산업사회 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인 양성이 가능해진 것도 있지만,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신설 등으로 일반계보다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신일용, 2004. 11. 14. 한겨레신문)
- 1998년 이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속출하였으나,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신설 등으로 대학 진학 여건이 유리해져 2005학년도 서울 전기고(전문계) 원서 접수 결과 35개 공업계 고등학교가 1.13 대 1, 44개 상업계 고등학교가 1.02 대 1 등 전체 평균 1.07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서울 소재 전문계 고등학교 응시자가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함(유병석, 2004. 12. 10. 국민일보)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 증가 현상을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특수성에 기인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하면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데에는 대입 경쟁률 저하, 전반적인 학력 상승, 학생들의 고급 인력 욕구, 수능 직업탐구 영역 및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함(조풍연, 2005. 9. 4. 세계일보)
- 전문계 고등학교의 계속교육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입학성적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자원이 입학하는 성과(예;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율 50%↑, 입학성적 17%↑)가 나타났음을 주장함(박동열, 2009)

- 직업교육의 위기는 직업교육의 외재적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잘못된 인식 및 직업교육에 불리한 교육 제도상의 문제,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업에 취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열악한 대우 등과 같은 교육 외적 문제에 기인되었음
  - 산업 분야 기능 인력 양성이 주목적이라는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가치 주장과 기능 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대,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산업 분야 근로 인력 양성 일변도로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및 정책 등에 의해 야기되었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 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는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이용환, 2000)
- 직업탐구 영역 및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정책의 성공 예측 요인으로서 평생교육체제 하에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 욕구 충족 및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마련, 기능과 이론을 겸비한 인력 양성 등을 주장함(김해동 외, 2003)
-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정철영(2001)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진학 위주로 해야 하는 근거 논리 및 이에 따른 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장함

진학 위주로 전문계 고등학교 성격을 규정해야 하는 근거 논리 및 논의 사항

근거 논리	논의 사항
① 직업기술 수준의 변화로 인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수준의 숙련공 수요는 줄어들고 중등 후 단계에서 양성되는 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②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③ 대학입학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기회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④ 교육정책 및 지방화로 인하여 진학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⑤ 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기술 수준이 높아져 진학이 요구된다는 것은 직업기술 수준과 학교 교육 수준이 일치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li> <li>● 진학 위주로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li> <li>● 고학력 욕구가 강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과잉 학력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li> </ul>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단계에서 대학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정부의 중등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li> <li>○ ‘新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6) 이후 중국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전환된 전문계 고등학교 기능과 취업 및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격에 부합</li> <li>○ 전문계 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 진학에 대한 현실적 욕구 충족, 신입생 유치 및 정원 확보 문제 완화, 우수한 학생 자원 유입 증가 등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기피 현상 완화</li> <li>○ 교수·학습 측면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전문교과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학습 동기 부여, 학습부담 경감</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계 고등학교를 취업 중심의 중국교육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근거하여 정체성 혼란 문제 예상</li> <li>○ 하향 취업 및 실업과 같은 과잉학력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문제 및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문제 예상</li> <li>○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 여건 및 대우 등과 같은 교육 외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및 제도 마련 요망</li> </ul>

(2) 계속교육 강화 정책으로 취업 중심의 중국교육이 약화되어 전문계 고등학교 정체성 혼란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수능 직업탐구 영역 및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등과 같은 계속교육 강화 정책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하여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률, 진학 희망률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취업률(%)	74.3	73.4	51.4	27.7	19.0	16.7
진학률(%)	8.2	19.2	41.9	67.6	72.9	73.5
진학희망률(%)	22.0	35.6	50.8	70.8	77.4	78.7

자료: 교육인적자원 통계 서비스-교육통계연보.

출처: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http://std.kedi.re.kr/index.jsp>

- 전문계 고등학교를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대학진학 수단으로 인식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진학상의 유리한 이유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지원 하는 경향과 직업교육보다 수능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요구 등이 확대되어 취업중심의 직업교육 어려움을 주장함(김해동 외, 2003; 박동열, 2009; 장세풍, 2010. 1. 21. 내일신문)
-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원화 교육과정 운영(교육부, 1997), 고등교육 단계로의 직업교육 중심축 상향 조정(교육부, 1999), 수능 직업탐구 영역 및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교육인적자원부, 2001. 11) 등과 같이 진학 수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및 유지 정책들은 신입생 숫자를 늘려주는 단기처방 정책으로서 직업교육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구조 조정 필요성을 주장함(박동열, 2009; 장세풍, 2010. 1. 21. 내일신문)
  - 직업탐구 영역 및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정책의 실패 예측 요인으로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혼란, 산업체 기능 인력 공급의 차질,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입시 기관화 등을 주장함(김해동 외, 2003)
  -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정철영(2001)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취업 위주로 해야 하는 근거 논리 및 이에 따른 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주장함

취업 위주로 전문계 고등학교 성격을 규정해야 하는 근거 논리 및 논의 사항

근거 논리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인력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li> <li>②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미흡하므로, 이를 위해 취업에 강조를 두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더욱 더 반영해야 한다.</li> <li>③ 하향 취업과 같이 과잉 학력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li> <li>④ 단순한 진학 위주는 상급 학교로의 학력 경쟁을 야기하며 질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li> <li>⑤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계 고등학교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취업 위주의 종국 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li> <li>• 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li> </ul>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체제 구축으로 중견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 수행 가능</li> <li>○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산업체 기능 인력의 안정적 공급</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교육 강화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결여 및 실패하였던 1990년대 이전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으로 회귀</li> <li>○ 취업 및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아 또 다른 전문계 고등학교 정체성 문제 유발</li> <li>○ 산업구조 및 시대의 변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계속교육 기회 욕구 등에 대한 외면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기피 현상 문제가 심화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중등 직업교육 위기 재연</li> <li>○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일자리 창출, 취업 여건 및 처우 개선 등과 같은 교육 외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마련</li> </ul>

## 나. 요약 및 시사점

- 정부 차원의 계속교육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중등 직업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을 취업 중심의 중국교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학 중심의 계속교육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음
-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수능 직업탐구 영역 신설 등과 같은 정부의 대학 입학 문호 확대 정책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취업률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한 측면도 있지만,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교육 내적 요인보다는 취업 여건 및 대우 등과 같은 외적 요인과 학생 및 학부모의 고등 교육기관 진학 욕구에 기인한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정부의 계속교육 강화 정책 중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신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 상승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취업률 저조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지는 않음. 구체적으로, 2010학년도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수는 43,225명(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12. 7)이고, 2009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151,410명(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2009)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직업탐구 영역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전문계 고등학생 비율은 약 30%정도에 해당됨. 참고로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기 이전이었던 2000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수능 응시자 수는 48.5%이었음(이용환, 2000).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요구되는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계속교육 강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관련 정책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6).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Ⅱ)**.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4].
- 교육부(1999).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 교육인적자원부(2001. 11.). **실업교육 육성 방안**. 보도 자료.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각 년도). **교육인적자원 통계 서비스-교육통계연보**. 자료 출처: <http://std.kedi.re.kr/index.jsp> (검색일: 2010. 2. 17.)
- 김해동, 이병욱, 최규남(2003). **입시 정책 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3-2.
- 박동열(2009).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案)**.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1-44.
- 백하나(2009. 12. 18.).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가는 전문계 高 교육정책. **뉴스천지**, 자료 출처: <http://www.newscj.com> (검색일: 2010. 2. 10.)
- 신일용(2004. 11. 14.). 추락하던 실업고 '특성화'로 비상. **한겨레신문**,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 (검색일: 2010. 2. 10.)
- 유병석(2004. 12. 10.). 서울 실업계고 2005학년도 입학전형...7년만에 정원 초과 지원. **국민일보**, 자료 출처: <http://www.kukinews.com> (검색일: 2010. 2. 10.)
- 이용환(2000). **실업교육의 본질과 위기**. **2000년도 실업교육관련학회 및 교장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주관. pp. 1-28.
- 장세풍(2010. 1. 21.). 전문계고교, 대입 통로로 변질-지난해 대학 진학률 72.8%...산업현장서도 외면받아. **내일신문**, p. 19.
- 정철영(2001). **농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농업교육학회 · 한국농업교육협회 2001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농업교육학회 · 한국농업교육협회. pp. 1-51.
- 조풍연(2005. 9. 4.). 실업계고 확 달라졌다...진학 · 취업 모두 "OK". **세계일보**, 자료 출처: <http://segye.com> (검색일: 2010. 2. 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12. 7.).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 자료**. 자료 출처: <http://www.kice.re.kr/index.do> (검색일: 2010. 2. 10.)

### 가. 주요 쟁점 내용

#### (1) 수능 과목에서의 제2외국어 제외

#####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인데, 제2외국어를 제외하는 것은 교육 목표에 정면 배치되는 것임
  - 외국인의 삶과 문화가 배어 있는 언어의 습득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박철현, 2010. 2. 17. 한국일보)
  - 현재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풍부한 교사 인력은 글로벌 인재 개발을 위한 자산임
-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자원 외교 강화에 필요한 진취적인 세계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 교육은 필수적임(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 2010. 2. 3.)
  - 아랍어권의 원진 건설,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 중국의 최대 교역국 부상 등 친외교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함
- 수능에서의 제외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붕괴로 이어짐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교과목의 개설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 제외되면 학교 현장에서 과목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공교육에서의 제2외국어 과목의 소멸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임(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 2010. 2. 3.)
-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양한 외국어를 대입 전형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음(박철현, 2010. 2. 17. 한국일보)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과목 축소로 수험생의 부담 경감</li> <li>○ 출제 기관의 부담과 비용 경감</li> </ul>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에서 제외됨으로써 2001학년도 수능 이전처럼 제2외국어 교육의 붕괴가 우려됨</li> <li>○ 세계화, 국제화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결과 초래</li> <li>○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목표에 정면 배치됨</li> <li>○ 모든 주요 국가들이 여러 외국어를 동등한 위상을 지닌 과목으로 대학 입시에서 다루고 있음</li> </ul>

(2) 아랍어 과목의 집중 선택

(가) 주장의 내용 및 근거

- 2005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아랍어 과목이 포함된 이후 응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정현목, 2009. 12. 8 중앙일보)
- 아랍어를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전무한 실정임
- 대학별로 아랍어 점수를 변환 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아랍어에 대한 ‘점수 변환 공정’을 실시하여 아랍어 선택자가 다른 과목보다 유리하지 않았음(오현석, 2009. 12. 26. 조선일보)

(나) 장·단점 및 고려사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랍어 및 아랍 세계 이해에 대한 저변 확대</li> <li>○ 20여 개국에 달하는 아랍어권 국가들의 한국 이미지 개선 및 한국어 교육 붐 조성에 일조</li> </ul>
----	---

단점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랍어를 공부하지 않은 허수의 증가로 ‘로또’ 수능이라는 인식과 단기간의 학습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li> <li>○ 두터운 하위권 형성으로 인해 소수 만점자의 경우 표준점수 100 점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타 과목과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형평성 및 과목 선택 유·불리의 주범으로 언론에 질타 받음</li> <li>○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 자체 내에서 점수 보정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li> <li>○ 지금 현재는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는 수험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고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공교육에서 교육하려는 움직임 있음</li> <li>○ 아랍어 허수 수험 인원의 증가로 제2외국어 전체를 시험 과목에서 제외하면 아랍어권 국가들의 외교적 항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	--

## 나. 요약 및 시사점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외국어를 대학 입시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음
- 무역, 자원 외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제2외국어는 수능에 포함해야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함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아랍어 선택 인원의 증가로 ‘로또’ 수능이라는 인식도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점수 보정하여 유·불리 문제 해결하고 있음
- 아랍어에 대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2외국어를 영어와 구분하지 않고 외국어 중의 하나로 가르치고 대입입시 과목에도 포함됨(이양락 외, 2009b)

주요국의 대학입학시험 외국어 과목 구성 및 개요

국가	시험 명칭	시험 과목	문항 수 및 유형
미국	SAT Subject Test	중국어 및 듣기	4지선다형 85문항
		프랑스어/프랑스어 및 듣기	프랑스어 : 4지선다형 85문항 프랑스어 및 듣기 : 4지선다형 85~90문항
		독일어/독일어 및 듣기	독일어 : 4지선다형 80~85문항 독일어 및 듣기 : 4지선다형 85~90문항
		현대 히브리어	4지선다형 85문항
		이탈리아어	4지선다형 80~85문항
		일본어 및 듣기	4지선다형 80~85문항
		한국어 및 듣기	4지선다형 80~85문항
		라틴어	4지선다형 70~75문항
		스페인어/스페인어 및 듣기	4지선다형 85문항
영국	GCE A-Level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르두어(파키스탄 공용어) 등	논술형
독일	아비투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논술형, 구술시험(학교 당국은 3개의 시험문제 유형에서 2개를 선택, 그 2개에서 응시생이 하나를 선택)
		기타 현대 외국어(각 주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외국어)	논술형, 구술시험(학교 당국은 2개의 시험문제 유형을 받고, 응시생에게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
		고전어(라틴어, 그리스어)	논술형, 구술시험(학교 당국은 4개의 시험문제 유형에서 2개를 선택, 그 2개에서 응시생이 하나를 선택)

프랑스	바칼로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1(모든 계열 필수): 독일어, 영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현대 그리스어, 현대 히랍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터키어, 베트남어</li> <li>○ 외국어 2, 3(계열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 외국어 1에 제시된 외국어 외에도 지역어도 선택 가능(바스크어, 브르타뉴어, 카탈루냐어, 코르시카어, 크리올어, 멜라네시아어들, 옥시타니아어, 타이티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답형과 서술형 10문항 내외</li> <li>○ 계열에 따라 외국어 1, 2, 3이 필기 시험 또는 구두 시험으로 치러짐</li> <li>① 구두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 독일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li> <li>- 지역어 :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카탈루냐어, 코르시카어 등</li> </ul> </li> <li>② 필기 시험 : 한국어,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핀란드어, 힌두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어, 라오스어, 리투아니아어, 마케도니아어, 노르웨이어, 루마니아어, 세르비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웨덴어, 스위스어, 타밀어(인도), 체코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li> </ul>
스페인	PAU	<p>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p> <p>*각 주의 특성에 따라 갈리시아어,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단어 내외의 텍스트 제시 (A, B 두 가지 텍스트 중 택일)</li> <li>○ 언어 능력 측정을 벗어난 전문 지식은 묻지 않음</li> <li>○ 5개 영역(독해력, 독해 및 쓰기 표현, 어휘력, 구문 이해력, 작문 능력) 측정</li> <li>○ 시간 : 90분</li> <li>○ 점수 : 총 10점</li> <li>○ 유형 및 문항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해력 : T/F(2문항)</li> <li>- 독해 및 쓰기 표현 : 자신의 말로 적절한 답변 쓰기(1-2문항) *텍스트 베끼기 금지</li> <li>- 어휘력 : 텍스트 내에서의 의미 또는 유사 표현 쓰기(2-4문항)</li> <li>- 구문 이해력 : 빈칸 채우기(8문항)</li> <li>- 작문 능력 : 텍스트와 연관된 질문에 대한 자유 작문(100-150 단어, 1문항)</li> </ul> </li> <li>*질문과 답변은 해당 언어로 이루어짐</li> <li>*영역에 따라 단답형 또는 서술형으로 구성됨</li> </ul>

러시아	국가통합 시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3-4지 선다형 30~35 문항 단답형 10~15 문항, 서술형 2문항
일본	센터 시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필기 200점, 듣기 평가(영어만) 50점 4-5지 선다형 48문항~60문항
중국	전국일반 대학신입 생모집통 일시험 (全國普通高等學校招生統一考試)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4지선다형+서술형(총점 150점) (*외국어 전공 지원자는 구두 시험을 치러야함)  후룡강성 2007년 일본어 : 4지선다형 90문항(120점)+서술형 1문항(30점) 후룡강성 2007년 러시아어 : 4지선다형 45문항(90점)+단답서술형 20문항 (30점)+서술형 1문항(30점)

## 〈참고 문헌〉

- 박철현(2010. 2. 17.). 수능서 빠지나... 제2외국어 과행 우려. **한국일보**, p. A10.
- 오현석(2009. 12. 26.). 어? 수능 아랍어 ‘로또’가 아니었네. **조선일보**, p. A9.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남진영, 서보억, 김용명, 박태준,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이정우, 신항수, 강대현, 신일용, 최혁준, 김동영, 동효관, 구자옥, 김현경, 김진구, 함승연, 박영수,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 손민정, 장호성, 윤영순, 김새환(2009b). **일본 대학 입시센터시험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46.
- 이양락, 노은희, 박기범, 조윤동, 남진영, 김진석, 이문복, 김용명, 은지용, 박진동, 장의선, 황인표, 서민철, 신일용, 최혁준, 심재호, 김동영, 김진구, 함승연, 김영준, 김영춘, 이용백(2009a). **미국 SAT와 ACT 문항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7.
- 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남, 이혜원, 김천홍, 민전순, 이부련, 조성복, 최진석, 김종람(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 동향 연구 -독일·러시아·영국·프랑스·핀란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O

2009-9-4.

정현목(2009. 12. 8.). 가르치는 학교 없지만 5만 명이 아랍어 선택. **중앙일보**, p. A4.  
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2010. 2. 3.).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에 대한 제2외국어 교육계의 입장.**

**<주요국의 대학입학시험 외국어 과목 구성 및 개요에 대한 자료 출처>**

<http://www.fipi.ru> (검색일: 2010. 2. 12.)

<http://www.admis-examen.fr/baccalaureat/epreuves-langues-vivantes> (검색일: 2010. 2. 16.)

<http://www.etest.net.cn> (검색일: 2010. 2. 17.)

<http://curriculum.qcda.gov.uk/key-stages-3-and-4/subjects/key-stage-3/modern-for-eign-languages/planning-and-assessment/index.aspx> (검색일: 2010. 2. 17.)

<http://pre.universia.es/selectividad/examenes/index.htm> (검색일: 2010. 2. 17.)

## Ⅲ.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미래형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2014학년도 수능은 새 교육과정의 체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994학년도에 수능이 처음 실시된 이후 현행 수능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정책 과제를 주어 새로운 수능 체제 시안을 2010년 3월까지 마련한 후 6월까지 새로운 수능 체제의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수능 체제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능 체제 개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 새로운 수능 체제 시안이 나오게 되면 본원에서 4~6월의 단 3개월 동안에 이를 구체화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한 일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수행하게 될 정책 연구를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선제적으로 수능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과 다양한 쟁점과 쟁점별 주장의 내용과 근거, 장·단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 ○ 수능의 성격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검사로서의 성격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생의 시험 준비 경감을 위한 고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된 학력검사형의 두 가지 유형 또는 시험을 이원화하여 수능 I(적성검사)과 수능 II(학력검사)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음

### ○ 시험 과목 축소

현행 7개 영역 51개 과목의 출제가 많아 시험 영역과 과목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함. 감축하는 방식으로는 언어, 수리, 영어에 한정하자는 방안, 직업탐구 영역이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수능 체제에서 제외하여 언어, 수리,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5개 영역으로 하는 방안,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경우 학문 영역별로 통합하는 방안(예: 물리 I 과 물리 II를 합하여 물리로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음

### ○ 복수 시행 방안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수능을 단 1회만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문제은행 구축과 검사 동등화, 시험 시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 시험 유형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현행 선다형 문항 외에 서술형 문항도 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수능처럼 고부담 시험에서는 채점의 공정성과 채점 기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현행의 탐구 영역 20문항, 수리 영역 30문항은 선다형 시험을 유지하더라도 시험의 신뢰성과 변별력 제고를 위해 문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 출제 방식

현행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택 출제 후 선제하는 반개방형 출제 방식, 문제은행 출제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반개방형은 문항 보안과 문제은행식 구축 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 수능 성적 유효 기간 연장

현재의 당해 연도만 유효한 수능 성적의 활용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검사 동등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수생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

#### ○ 수능의 점수 체제

선택 영역/과목 간 난이도 차로 인한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표준점수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선택 영역/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의 차이 등 유·불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다양한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들 방안의 장·단점이 검토되었음

#### ○ 계열 구분 여부(교차 지원 허용 여부)

어려운 수리 ‘가’형 대신 쉬운 수리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이 이공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에 응시한 수험생을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차 지원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 학습 기피 및 대학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반면에 지식 통섭의 시대에 계열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전환

교육과학기술부(2010. 01. 07.)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입 수시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수능을 대체할지 여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에 결정하여 2016학년도부터는 수능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 현행 간접 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수능 영어 시험과 달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말하기·쓰기 능력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말하기·쓰기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표현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10회에 걸쳐 한 명당 2~3회를 응시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2012년까지 복수(연간 10회 이상) 시행에 필요한 각 등급별 문항 수를 확보

- 말하기·쓰기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출제자 및 채점자를 확보
- 최적의 동등화 시스템을 통한 시험 간 동등화를 담보
- iBT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최적화된 iBT 운영 및 보안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전국적으로 충분한 시험장을 확보(적어도 500개 이상)

따라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수능 영어 시험을 완전 대체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말하기·쓰기 영역만을 분담하는 부분 대체 방안(듣기·읽기 영역은 현행 수능 영어 시험이 담당)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 선택 과목 유·불리 및 편중

시험의 난이도 차이와 응시 집단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아랍어 선택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00점으로 다른 선택 과목 최고점(대체로 70~80점)과 차이가 나고,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탐구 영역에서는 선택 과목 간 표준점수가 최대 31점까지 벌어지면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나타남. 이에 따라 선택 과목 중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아랍어 응시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학년도 결과를 보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아랍어에 응시한 수험생은 5만1141명으로 이 영역 전체 응시자의 절반에 가까운 42.3%에 달함. 따라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험 체제 및 점수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 수능의 영향력 축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임. 그러나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등급만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변별력 문제와 합산 표준 점수가 높음에도 등급에서 낮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로 등급제는 1회 시행에 그침. 수능으로 대입이 결정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을 이유로 수능 약화와 내신 비중 강화에 대한 주장은 상존. 그러나 내신의 강화가 내신의 변별력을 믿지 못하는

대학의 논술시험이나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의 도입으로 ‘수능+내신+대학별 고사’와 같이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면 또다시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 초래. 내신 성적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하에서 보인 학업성취도로서, 3년간의 성적이 누적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학업에 대한 성실성의 지표로서 가치를 지님. 따라서 대입 전형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이나 기타 전형 요소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직함

#### ○ 언어 영역에서 ‘듣기’ 문항의 존폐

수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없었지만 4차 실험평가부터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듣기 평가가 도입됨. 수능 시험의 성격과 관련하여 앞으로 언어 영역이 교육과정과 별개로 ‘적합성 평가’로 나아간다면 듣기 평가의 존폐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함. 다른 나라의 대학 입시에서 자국어 과목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 사례가 없으며, 높은 사회적 비용과 물적·인적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수능의 듣기 평가가 학교 수업의 듣기 영역의 교수·학습에 환류되는 효과가 미미하며, 현행 듣기 평가 문항이 난이도, 시험 방식, 평가 요소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진정한 듣기능력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외국의 대입 시험에서 자국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이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가 불필요해서인지 시행상의 문제 때문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대입 환경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함.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존폐 문제 자체는 저작물이나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일부의 의견만으로 존폐를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곤란함. 관련 집단(예컨대 학부모, 학생, 교사, 학생 선발권자 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이 포함됨으로써 직업교육이라는 전문계 고등학교 설립

본연의 목적보다는 대학 입시 방편으로 활용되어 수능에서 직업탐구 영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기반 구축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있음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을 취업 중심의 중국교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학 중심의 계속교육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으며, 이것은 어느 한 성격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움. 본질적으로 전문계 고교는 취업중심 직업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진학중심 계속교육으로 본다면 일반계고교로 전환하여 거기에 맞게 교육해야 함

전문계 고교를 취업중심 직업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는 제공되어야 하며, 수능의 성격 및 출제의 효용성 측면,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효율성 및 졸업생의 취업률 등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 제2외국어 관련 쟁점 사안

수능에서 제2외국어 관련 쟁점은 대학수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수학능력 측정정보다 400개 단어 수준의 기초 생활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이 있으므로 수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차로 인한 유·불리 문제 및 일반계 고교와 외국어고 출신 간의 유·불리 문제, 아랍어 선택 집중 현상이 있음. 이에 대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가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이고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양한 외국어를 대입 전형 시험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제2외국어 문제는 수능의 성격, 국가 경쟁력 차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선택 과목 간 난이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전형 자료이므로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이하 초·중학교 교육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새로운 수능 체제는 이러한 교육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면 원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고 예기치 않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능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 대학 입시라는 큰 틀 속에서 수능 체제 개선

수능은 대학 입시 전형의 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능 체제의 변화는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즉, 대학 입시 자율화, 입학사정관 제도의 확대, 고교 내신 성적의 활용 등 우리나라 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지금과 같이 국가 수준의 공통 비교 척도로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할지, 아니면 영향을 약화시키고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인지에 따라 수능 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내신이 강조된다면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외에 인문계는 사회탐구, 자연계는 과학탐구를 응시하게 하고 다른 영역은 내신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능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 ○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기초한 발전 방안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능 성적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출제와 시행에서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안고 있는 시험으로 통한다. 그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출제 체제를 유지하기를 요구

받고 있다.

미국 SAT, ACT에서는 기출 문항을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 고사가 있는 일본에서는 센터시험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나 문항 오류가 발생해도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수능은 기출 문항의 재출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문항의 오류나 복수 정답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학교 교육에서 소홀히 되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운 수능 체제를 마련하려면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직시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능 체제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이상이 아닌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바탕을 둔 수능 체제 마련

수능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수준의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가능성에 바탕을 둔 체제 개선이 아니라 100%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은행에 기초한 수능 출제 방안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에서 핵심 과제의 하나로 발표(2004. 10. 28.) 되었으며, 이 안에 따르면 기존의 폐쇄형 출제 방식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 출제 시 문항 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일부 영역(예: 탐구 영역)에 도입하고, 2010학년도 시험부터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제은행식 출제에 필요한 문제은행 구축, 검사 동등화, 우리나라의 가용 출제 인력과 예산, 외국 사례 벤치마킹 등 문제은행식 출제 구축에 필요한 전반적인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 없이 도입이 결정됨으로서 아직까지 수능 출제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SAT는 17개 과목, ACT는 5개 과목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1개 과목이다. 그리고 미국은 대학 적성 시험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구축된 문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 더욱이 우리 수능은 SAT나 ACT에 비해 훨씬 더 고부담 시험이어서 검사 동등화에 필요한 예비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은행 구축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검사 동등화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수능 복수 시행 방안, 수능 영어 시험을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은 우리나라의 여건 및 준비 실태를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해야 할 것이다.